Entertainment p/18

'엘사' 이디나 멘젤 방한

metro

Sports p/21

KIA 나지완 결국 2군행

밥먹으러 시청 다니나

박원순시장 하루 평균 공식 밥값 117만원… 1~3월 업무추진비 내역 p/3

임종석 등 부시장 3명 합치면 석달간 2억원… 주말·야간에도 펑펑

신세계 노인폭행사건 검찰, 본격 수사 착수 p/3

홍준표는 무상공밥? p/3

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땅콩회항 조현아 뺨치는 최차규 부인 '갑질 의혹'

<현 공군참모총장>

물량 한정 백신 접종 요구 의무병 강제전출 시도까지

현 공군참모총장의 부인이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부대 내에서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인은 물량이 한정돼 의료진 등 필수인력에게만 허용된 독감백신 접종을 요구하며 강짜를 부리고, 남편은 규칙을 지키고자 노력한 의무병을 강제전출시키려 했다는 내용이다. 사실이라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을 능가하는 갑질이다. 조 전 사장은 그나마 부사장 직책에 있었지만 총장 부인은 엄연한 민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7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의 비리와 그의 가족들의 월권과 권력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임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최 총장 부인은 2013년 의무병이 지침을 설명하며 난색을 나타냈지만 예방접종을 강요했다. 최 총장이 공군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때다.

당시 의무병은 독감백신의 물량이 제한돼 독감예방 필수인력인 조종사와 의무관련 종사자도 제한돼 예방접종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총장 부인은 의무병이 접종 요구에 응하지 않자 부대 간부까지 불러 의무병을 압박, 예방접종을 마쳤다. 또 의무병이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지만 역시 무시했다. 도리어 남편인 최 총장은 의무병을 강제 전출시키려 했다는 설명이다.

2013년 가을 발생했던 독감백신 파동 때 정부는 2만3000명분의 백신만을 간신히 확보했다. 물량 부족으로 정부는 확보된 백신을 전량 무료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1·2종, 국가 유공자를 위한 용도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접종 중단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일반 시민들은 제값의 3배가 넘는 가격을 주고 백신을 맞아야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군인권센터가 제기했던 최 총장의 부패관련 기자회견에서도 역시 최 총장 부인의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임 소장은 최 총장의 부인이 관용차를 개인 자가용처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총장 부인이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운전병에게 생수를 미리 준비하고 특정 라디오방송으로 채널을 고정시키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최 총장 부인이 이용하는 관용차 운전을 모든 운전병이 꺼렸다는 증언도 소개했다.

현재 국방부는 최 총장 일가의 의혹과 관련해 최 총장 본인에 대한 회계감사만 진행하고 있다. 이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직무감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회계감사를 마치고 다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정윤나기자 yoona@metroseoul.co.kr

"전역한 부하들이 최 총장 비리를 신고하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에서 진행된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비리 관련 2차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임 소장은 전역한 최 총장 부하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訃告

泰鎬 大夫人 永川李氏 善愛 女史께서 宿患으로 2015年 5月 7日 (陰 3月 19日) 午前 9時 45分 別世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殯所 : 서울峨山病院 葬禮式場
發靷日時 : 2015年 5月 11日 午前 6時
發靷場所 : 서울峨山病院 葬禮式場
葬地 : 慶北 浦項市 興海邑 西井里 先塋

子 泰鎬
女 慶鶴 在蓮 鳳蘭
子婦 陳壬順
壻 張玉樹 辛由郁 許承權 鄭元容 韓泰元

護喪 鄭興植

(附言 弔花는 정중히 謝絶합니다)

財團葬 公告

學校法人 一洲學院 · 一洲學術文化財團 · 善和藝術文化財團 李善愛 前 理事長께서 宿患으로 2015年 5月 7日 (陰 3月 19日) 午前 9時 45分 別世하시어 다음과 같이 永訣式을 財團葬으로 擧行함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永訣日時 : 2015年 5月 11日 午前 6時
永訣式場 : 서울峨山病院 葬禮式場

葬禮委員長 : 沈載赫
葬禮委員 : 金龍澤 鄭炳鎭
全宜吉 元裕信

學校法人 一洲學院
一洲學術文化財團
善和藝術文化財團

葬禮委員會 委員長 沈載赫

(連絡處 : 葬所 02)3010-2631)

외교관 해외출장 성폭행 증거물 'DNA 일치' 확인

국외 출장 중 외교부 간부급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해당 공무원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여직원 B씨가 아프리카 현지 숙소에서 가져온 침대보 등 증거물에서 외교부 4급 공무원 A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이를 유력한 성폭행 증거로 보고 해당 공무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40대인 A씨는 20대인 B씨와 4박5일 일정의 아프리카 출장 중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B씨는 여같은 피해사실을 알렸고 외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외교부는 경찰수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윤아기자

동북아 외교전쟁, 논란의 외교부
외교부는 최근 미일동맹의 강화로 동북아 외교전쟁에서 무능을 드러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연합뉴스

영국식 책임정치… 한국은 책임 '추궁' 정치

영국총선 투표시작, 브렉시트 중대결정 표가 좌우'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좌우할 영국총선이 7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영국은 한국보다 8시간 늦다. 총선결과는 한국시간으로 8일 오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이번 총선은 집권 보수당도, 도전자인 노동당도 과반의석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소정당과의 연정도 불투명해 1929년 이후 86년 만에 소수내각의 출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의회가 소수내각을 불신임하면 재총선이 불가피하다. 브렉시트를 주장하며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한 보수당이나 반대쪽에 선 노동당이나 누가 정권을 잡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영국식 책임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브렉시트는 영국을 의미하는 '브리튼'과 탈퇴를 의미하는 '엑시트'의 합성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한다. 표현상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 그렉시트와 유사하지만 파괴력은 훨씬 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영국이 탈퇴하면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와 지원금 부담 증가로 유럽연합(EU)의 경제성장은 발목이 잡히기 때문이다. 그렉시트의 영향은 보다 제한적이다. 유로존 외에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타격이 1차적인 문제다.

브렉시트 문제는 2012년 반EU정서가 확산되면서 불거졌다.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013년 1월 브렉시트를 공론화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보수당의 승리를 전제로 2017년 이전에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약했다.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는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밀리밴드 당수가 수상관저인 다우닝10번가 앞에서 "저는 방금 여왕으로부터 정부 구성 요청을 받았다"고 말하는 순간 브렉시트는 백지화된다. 수상관저에 들어가기 전의 이 한마디는 관례적인 승리선언 방식이다.

보수당이 승리하더라도 곧장 국민투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보수당이 하원 총 650석 중 326석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 선거 기간 보수당과 노동당 양대 정당은 지지율 30%대 초중반에 머물렀다.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1곳에서 최다득표자 1명만을 뽑는 소선구제의 특성이 양당제를 떠받쳐 왔지만 이번 총선에는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유권자들이 군소정당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당의 연정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은 브렉시트에 반대 입장이다. 보수당이 국민투표를 강행할 경우 의회의 불신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 투표가 국가의 중대사를 사실상 직접 결정하는 셈이다. 이 같은 정치메커니즘은 영국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핵심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총선이 진행 중인 영국의 튀이클렌드 거리 모습. 투표를 독려하는 그림이 그려진 유리창 너머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송현철기자 hsong@metroseoul.co.kr

4월국회 빈손파행, 개헌도 연금도 '청와대 손바닥'

공무원연금에 발목이 잡혀 시급한 현안이 5월국회로 미뤄지자 여야는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4월국회가 파행으로 마감된 다음날인 7일 여야는 해법을 모색하는 대신 책임공방을 벌여 또 다른 비판을 불렀다. 심대당과 당내 비대파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인 공방이었지만 특히 청와대에 대한 공격이 두드러졌다. 청와대는 여야의 협상 직후 판을 깨놓고도 정치권이 각 당의 유불리와 이해관계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책임정치는 사라지고 책임추궁 정치만이 난무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기공식에서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을 둘러싼 각종 책임론을 모두 여야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이었다.

국회는 청와대를 공격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부 대표자를 포함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합의하고, 또 여야 대표가 보여서 추인하면서 책임지겠다 고 국민들 앞에서 보증한 내용을 오로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뒤집었다"고 말했다.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며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개혁 협상의) 논의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등 다 알고 있었는데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중에) 이를 청와대와 따져보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로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는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고별사 발언은 의미심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실패의 근본적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목했다. 그는 "정치적 측면에서 승자독식구조, 즉 우리나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소통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도 만나보고, 여당을 7년차 하고 있는데 구조 자체가 소통에 친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여당은 청와대 대변인 노릇, 야당은 투쟁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는 나라"라며 "어느 분이 국회의원 되더라도 그것은 변화가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사람을 갈아치우자고 하는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내 대표적 개헌론자다. 그는 개헌 역시 청와대에 막히고 말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유 원내대표와 논의는 그만하고 이제 (개헌을 추진)하자고 했고 (두 사람) 다 마음이 있었다"며 "그 속내를 대통령에게 용감하게 전달해야 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외교단 리셉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서이기자 seoun2019

새 원내대표 이종걸 공무원연금 개혁 바톤터치 7일 임기를 마친 우윤근 전 원내대표에 이어 이종걸 의원이 새로운 원내사령탑에 선출됐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추겠다"며 "공무원연금개혁 반드시 이어달리기 해내겠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사태와, 대법관 인준안 직권상정, 공무원연금개혁안 파기 등으로 어제는 참혹한 날이었다"며 "국회 15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분노가 치오르는 날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관순함, 최신예라지만 결국 디젤잠수함

해군은 7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214급(1800t급) 잠수함(SS Ⅱ) 6번함인 유관순함의 진수식을 열고 '유관순함'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관순함은 길이 65.3m, 폭 6.3m, 최대속력 20노트로, 승조원은 40여명이다.

내년 11월 해군에 인도될 유관순함은 대함전, 대잠수함전, 공격기의 부설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적 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km의 국산 잠대지 순항미사일인 '해성Ⅲ'을 탑재한다. 또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갖춰 수면에 오르지 않고 2주 동안 수중작전이 가능해 연료 재충전 없이도 미국 하와이까지 왕복 항해할 수 있다. 해군은 최신예함이라고 추켜 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래봐야 디젤잠수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엔 역부족이다. 잠수함 전문가들은 성능 및 효율적인 면에서 디젤잠수함과 핵추진잠수함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문근식 해군 예비역 대령은 "핵잠수함은 무제한 기동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만 물 위로 올라오며 디젤잠수함보다 전략적으로 10배 이상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아기자 yoona1@

'입영신청 탈락' 제보를 받습니다

☞ 제보하실 곳 yoona1@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은 현행 입영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입영신청을 냈지만 계속된 탈락으로 학업이나 삶의 계획을 세우기 힘든 분들, 막연한 기다림에 청춘을 허비하는 분들, 영문을 모르는 탈락으로 심적 고통을 겪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긴급

도·시·군·구 지역본부장 모집

metro

창간 13주년을 맞는 국내 최대 유일 무료신문 메트로신문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펼칠 지역별 책임인재를 모집합니다.

1. 모집지역 도 시 군 구 별 1명(기존사업 병행가능)
2. 모집조건 지역판 발행 및 광고사업 유경험자
3. 주요사업 지역면 제작 및 배포
   본판(서울/수도권판) 내지면 해당지역면 제작
   수익률 광고 및 배포대행 순수익
   세부사항 본사 내방 협의
4. 서류접수 2015년 5월 15일 마감
   이력서, 자기소개서
5. 문의 박성호부장 02)721-9861 blue@metroseoul.co.kr

'A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In Joon An' Single Processing Accepted in 100 Days.

The governing party unilaterally approved the appointment of a controversial Supreme Court Justice nominee on Wednesday using its majority, ending a week long partisan fight over the nomination. The National Assembly voted 151 to 6 in favor of the appointment of Park Sang-ok to the Supreme Court. One vote was counted as invalid. The main opposition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numbering 130 boycotted the vote in protest. Persisting disagreements on public service pension reforms between the main parties held off a plenary voting on related amendments and scores of other economy-related bills. The nomination of Park has been pending to the Assembly since January due to the opposition's objection. The NPAD says the ex-prosecutor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alleged cover-up of the torture death of Park Jong-chul, a student protester under police custody in January 1987. Park denied the accusations, saying he had been a junior prosecutor following orders from higher-ups.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준관) 강사

여당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 단독처리…100일만에 통과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지난 1월26일 국회에 제출된 지 꼬박 100일 만이다.

동의안은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만간 빨리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83일 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는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87년 민주화의 도화선이자 상징인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대한 모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87년 1월 박 열사가 고문을 받고 죽은 다음날 당시 치안본부장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말했다. 당시 고문경찰의 수사를 맡은 박 후보자는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PAGODA

때늦은 반성과 사과문 의미 있을까

최지선이 보는 세상민시

출근길에 홍보대행사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내추럴엔도텍 김재수 대표이사가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으니 기사에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사과문에는 "백수오 원료에 대해서는 입고 전과 입고 후, 제품 생산 전 철저히 검사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왔으나,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조사에서 해당 롯트에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되었다. 그간 원료의 재배, 수매 등 관리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나 혼입된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는 반성의 뜻이 들어있었다. 이어 "창고에 보관중인 백수오 원료 28t뿐 아니라 모든 백수오 원료 전체를 소각 폐기하겠다. 백수오 품질 관리를 위한 농가 실명제, 기존의 영농조합 계약 대신 개별 농가별 계약 체결, 3개 외부 기관에서 유전자 분석 검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지난해 계약 재배한 백수오가 약 150t이며 이 중 약 70t을 사용했다"며 "올해 농가와 계약한 백수오 물량 400t을 전량 매입하고 수매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3월26일 27일자 입고분을 포함한 해당 로트는 이미 식약처에서 반출 봉가로 봉인돼 있어, 단 1개의 제품도 생산 유통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 대표이사의 대국민사과는 용기있는 결단으로 볼 수 있으나 시기와 내용에 있어서 떠밀려 하는 느낌이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의 주장에 끝까지 반박하며 소송까지 했던 상황에서 식약처 발표 후 그동안의 주장을 철회한 것은 궁지에 몰려 어쩔 수없이 손을 든 모양새다. 게다가 사과문에서조차 변명과 주장을 하고 있어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과연 대국민사과문이 검찰이나 소비자원 그리고 국민 피부에 와 닿을지 궁금하다.

나아가 이번 사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지난 5년 동안 검사를 소홀히 한 식약처 역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늘 그래왔듯이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정부 책임자가 처벌 받게 되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 국민 304명이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된 국가적 재난에도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참사 14일째 방송을 통해 대국민사과를 발표했으나 국민 가슴을 울리지는 못했다.

정조이산어록에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지금 있는 말(馬)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진짜 말(馬)이 아님을 설명한다"는 것처럼 내추럴엔도텍과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문 역시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다. /사회부장

족쇄풀린 '핀테크', 금융사 新먹거리 되나?

기자 수첩
박아란 <경제부 기자>

당장 이달부터 금융회사에서도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 지분의 15%를 금융사가 초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두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출자하고 인수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한 셈이다.

하지만 족쇄풀린 핀테크가 저금리·저수익에 허덕이는 금융권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리스크에 민감한 금융 특성상 경영권 직접 확보 등 핀테크 기업 인수나 투자를 결정 하기까지는 절차적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융사가 믿고 투자할 만한 핀테크 업체 선별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실제 금융권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핀테크가 전세계적인 흐름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은행에서도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이 잘 갖춰져 있는데다 시장을 선도할 만한 핀테크 기업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장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기엔 이르고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비교적 안전한 업무 제휴나 협업으로만 핀테크를 지원하는 정도로 그칠 전망이다.

규제개혁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에 전자화폐인 비트코인과 크라우드펀딩 업체 등은 포함되지 않는 등 사업 부문 범위에 여전히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터넷 전문 은행 허용이나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등은 이미 기존에 나온 내용을 다시 언급한 수준이다.

물론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에 손질을 가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애플과 알리바바 등 해외 핀테크업체가 이미 전세계적으로 활개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낙관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 규제는 풀고 보안은 강화하는 방향에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모두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경매 교육 & 현장교육

<평일반> 5월 27일 ~ 6월 18일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매주 수,목요일 저녁7시 30분 ~ 10시 / 총 8강

<주말반> 5월 30일 ~ 6월 20일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매주 토요일 오전10시 30분 ~ 오후4시 / 총 8강

법원경매 전문법인 한때옥션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교육문의 02) 521 9111 (강남역 5번 출구)

인사

■ IBK투자증권
△신규선임 ▷리서치센터장 이종우

■ 강동경희대병원
▷운영본부 운영팀 팀장 겸 운영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조형순 ▷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센터행정실 실장 국준호 ▷경영지원실 제도개선팀 팀장 구혜대 ▷도제부 부장 김창태 ▷운영본부 재무팀 팀장 김동영 ▷운영본부 경사팀 팀장 유기택 ▷홍보마케팅실 홍보마케팅팀 팀장 임종성 ▷진료행정팀 팀장 이정현

■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국립현대미술관(과천)학예이사

■ 법제처
△부이사관 승진 ▷행정법제국 법제관 김수혁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승진 ▷선임연구위원 이창우 ▷〃 노태호 ▷연구위원 조을생 ▷〃 김형식 ▷〃 신창선 ▷〃 김호석 ▷전문연구원 조성현

■ 국립농업과학원
△국장급 ▷농식품자원부장 김을훈

■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고려대
△보직 전보 ▷기금기획본부 부장 최유진

부고

▲이현수(전 대구시부경협사장)씨 별세, 석계(대구은행 서울본부 부장)·석현(한국마이크로소프트 상무)씨 부친상 = 7일 오전 5시 계명대동산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 010-4535-2079

▲김경희씨 별세, 현군(경기 고양경찰서 경위)·광균(경기 성남수정경찰서 경위)·태원(주부) 준원(건강보험관리공단)씨 부친상, 박성구(SBSCNBC 보도국장)·김병식(건산농협 육산지점장)씨 빙부상 = 6일, 모란마장례식장, 발인 8일 ☎ 053-461-9981

저축은행 'SB가맹점론'은 빛 좋은 개살구?

카드단말기 불법대출 논란에
저축銀 부랴부랴 대책 마련
이마저도 7개 업체만 참여
소상공인 지원 실효성 의문

저축은행업계가 7일부터 자영업자인 신용카드가맹점주를 위한 저리 대출상품을 저축은행에서 판매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카드단말기할부금융상품' 마구잡이 판매에 대한 논란 잠재우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7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한 'SB 가맹점론'을 시스템개발업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저축은행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SB 가맹점론은 지난달 1일부터 출시한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신용

대출 공동상품이다. 가맹점은 월 카드매출액을 기반으로 금리 9~19.39%로 최대 1억원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저축은행의 '카드단말기할부금융상품' 논란 잠재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저축은행과 밴사가 카드 가맹점주를 상대로 카드단말기를 불법 대출행식을 빌려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는 자주가 돼 할부금융으로 단말기를 구매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대부업체에 매각돼 채권추심을 당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금소연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밴사를 통해 카드단말기할부금융상품을 무료인 듯 가맹점주 모르게 팔아 놓고, 휴폐업 시에는 부실채권으로 처리해 마구잡이로 추심대부업체에 매각했다.

카드 가맹점주가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신청을 하는데 밴사들이 이를 대행하면서 카드사 가맹점신청서, 카드매출 입금 통장, 신청 서류 등에 할부금융 서류를 끼워 넣은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설명 없이 가맹점주의 서명을 받아 저축은행에서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의 대출을 일으켜 카드단말기 값을 일시에 챙기고, 가맹점주가 관리비라고 내는 돈은 할부금융의 원리금을 매월 상환한 것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교육·관리 하는 밴사도 카드단말기 이용건수에 따라 건당 70~120원의 수입이 생긴다. 이 때문에 가맹점 모집 경쟁이 치열해 가맹점에 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말하면서 대부분 임대로 처리하고 A/S, 매출전표 수거, 용지 공급 등의 명목으로 관리비를 챙기는 것.

'SB 가맹점론'을 실시하는 저축은행이 7개에 불과한 점도 지적받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밝힌 해당 서비스 취급 회사는 웰컴·진주·IBK·드림·더블·삼호·스타저축은행 등 7개에 불과하다.

이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최근 공시한 업체 79곳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들 7개 은행의 자산 규모도 IBK를 제외하면 중소업체(총자산 5000억원 미만)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저축은행별로 대출신청 가능 지역이 상이하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7개 저축은행이 SB 가맹점론을 한국이지론을 통해 진행하고 있고 이외에도 두 곳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서비스를 확대하는데에는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앞서 논란이 된 가맹점주 채권추심의 경우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당시 금융소비자단체에서는 현재는 위와 시 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삼성물산, 협력사 근로자에 카네이션 달아줘 삼성물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건설 현장의 협력사 근로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카네이션 달아주기 행사를 벌이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내 집 마련 열풍, 좋은 아파트 고르는 방법은?

전세난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금성 높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고르기 위해 살펴봐야 할 내용을 정리해본다.

◆ **주변 환경** = 아파트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변 환경이다. 지리적 위치와 교통 환경 등 지역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 좋다. 1㎞ 반경 이내에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곳을 고르자. 와서 쇼핑 등이 편리한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이 가까이 있는 것도 중요하다.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에는 근방에 다양한 학군과 학원이 갖춰져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 **단지 조건** = 단지의 규모는 클수록 좋다.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며 관리비가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동을 선택할 때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와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게 좋지만 소음을 고려한다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주차장과 가까울 때도 자동차 출입 시 경보음이 신경 쓰일 수 있으니 살펴봐야 한다. 주 출입구와 인접한 동은 상대적으로 상가나 근처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할 가능성이 높다.

◆ **내부 설계** = 내부 설계에서는 판상형 4베이(4-bay)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판상형 아파트는 한 동이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한 일(一)'자로 배치된 아파트다. 앞뒤가 뚫려 있어 채광과 통풍이 좋다.

다양한 구조로 지어지는 타워형은 미관상 아름답다는 장점이 있지만 판상형에 비해 채광과 통풍이 나쁘다.

이 외 준공 시기와 층간소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전조사하는 것이 좋다.

◆ **라인·층** = 최근 아파트가 ㄱ자 구조로 동남향과 남서향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동남향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어 정남향, 동향 순이다.

아파트 라인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끝 라인은 웃풍이 있어 단열문제로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층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중간층이 무난하다. 오래된 원룸이나 단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꼭대기 층이 별로지만 최근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에서 꼭대기 층은 로열층으로 분류되곤 한다.

1~3층의 저층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하다. 소음과 보안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1층은 층간 소음문제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선호하기도 한다. /윤정원기자

한라,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공항 공사' 수주

한라가 794억원 규모의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공항 공사를 수주했다.

한라(대표 최병수)는 방글라데시 민간항공관리국 CAAB(Civil Aviation Authority of Bangladesh)에서 발주한 '콕스 바자르 공항 공사'에 대한 낙찰자 통보를 지난 6일 받았다고 밝혔다.

총 공사금액은 794억원(부가세 포함), 한라 지분은 50%인 397억원이다. 현지 업체인 Mir Akhter Hossain Ltd와 서광종합개발이 각각 40%와 10%의 지분을 가졌다.

콕스 바자르 공항 공사는 활주로, 전기·기계시스템 등의 확장 및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30개월이다.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공항 전경

이번 입찰에는 Abdul Monem Ltd(방글라데시), CAMC(중국) 등 여러 해외업체가 참여했다. 서류 적합성, 실적, 기술력 등의 평가를 거쳐 한라가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한라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울진공항 등과 울산신항, 평택항, 부산신항, 목포신항 자동차부두 등 공항·항만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수주 배경을 설명했다.

/이현욱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편집·인쇄인 남궁호
사장 겸 발행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어버이날, 꽃보다 '효도금융' 어때요?

은퇴설계부터 재무상담까지 맞춤형 서비스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등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인 '어버이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해마다 돌아오는 날이지만 매번 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뜻 깊은 선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전할까 아직까지 고민중이라면 카네이션 꽃과 함께 효도 금융 상품을 선물해보는 게 어떨까.

◆ 효도금융 상품 눈길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어버이날을 맞아 노후설계부터 예·경시 지원 등 부모님에게 효도할 만한 일석이조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있다.

고령화 등 100세 시대에 발맞춘 것으로, 금융사별로 조금만 눈여겨 보면 원금 손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실버예금부터 은퇴설계, 여행 보조등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효도 금융상품이 마련돼있다.

우리은행은 금융자산 적립과 함께 무료 상조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우리예(禮)드림 상조예·적금'을 추천한다.

이는 상조회사에 대한 불안감과 갑작스러운 상조 준비자금 마련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됐다.

고객은 상조회사의 지급거절과 환급지연, 횡령사고 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 가입기간 중 무료로 상조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농협은행은 공무원, 군인, 보훈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채움 브라보 연금통장'을 꼽았다.

'채움 브라보 연금통장'은 만 50세 이상 개인 또는 연금지급식상품(예·적금, 신탁, 펀드, 보험) 가입고객을 중심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을 받는 고객은 텔레뱅킹과 모바일 등 전자금융 수수료등 면제받을 수 있으며, 외화환전 수수료도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채움브라보 연금 패키지 복합거래 시에는 농촌사랑상품권과 4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도 주어진다.

◆ 은퇴설계·재무 상담 등 다양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한 은퇴설계 서비스도 준비돼 있다. 하나금융그룹의 '행복 노하우(knowhow) 서비스'가 바로 그것.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해 하나·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SK카드 등 그룹사의 은퇴설계 통합 브랜드인 '행복 노하우(knowhow)'를 내놨다.

'행복 노하우'는 시니어고객을 위한 종합서비스로 금융서비스와 제휴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외환은행은 독자적인 은퇴설계시스템인 '행복 노하우 설계시스템'을 통해 미래 재무설계와 맞춤상품 제안, 정기적인 재무상태 점검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행복 노하우 클럽'에 가입한 45세이상의 시니어고객에게는 은행업무와 관련돼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며 외화 환전 시 환율우대 혜택도 준다.

또한 헬스케어 업체인 녹십자헬스케어를 통해 1:1 전담간호사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맞춤 SMS 서비스, 전국 병원·검진센터 건강검진 예약대행 등 다양한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여행상품과 상조우대서비스, 각종 재테크세미나와 자금관리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연 2.00% 수준으로 금리 우대와 수수료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금수급 통장 '행복 노하우 통장'도 판매 중이다.

하나은행은 ▲가입 시점부터 은퇴할 때까지 자산 배분과 위험자산 비중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하나UBS 행복노하우 연금펀드' ▲10년 이상 계약 유지시 구간별 보너스 금리를 주는 '행복노하우 연금보험' ▲이 미용비와 약제비 등의 할인 혜택을 주는 '행복노하우 카드'도 출시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현대건설 등 가스 배관공사 담합

과징금 부과 현대건설 > 한양 > 삼성물산 順

전국에 천연가스 배관을 건설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책사업을 나눠먹기한 대형건설사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7건의 천연가스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 투찰 가격 등을 미리 정해 입찰 참여한 22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46억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현대건설, 한양, 삼성물산, SK건설, 삼보종합건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GS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한화건설, 대우건설, 신진 대림산업, 태영건설, 디보건설,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금호산업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17건, 2011~2012년 10건 등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27건의 공사 입찰에 지속적으로 담합을 했다.

2009년 주 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16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한 16개사가 한 곳씩 대표사로 사업을 따내고, 나머지 업체는 각 공사의 공동수급체로 지분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같은 시기의 통영~거제를 잇는 해저 배관공사는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3곳 중 현대건설이 낙찰받고 현대중공업이 들러리를 섰다. 낙찰을 받기로 한 업체는 들러리 건설사들과 사전 정보교환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고 사업권을 획득했다.

2011년부터 진행된 2차 공사에서는 담합에 참여한 22개사가 추첨을 통해 10개 공사를 골고루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낙찰자의 투찰율을 80~83% 범위 내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했다.

또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투찰 내역서를 문서파일이 아닌 갓처럼 숫자정보를 바꿔 USB메모리에 저장했다. 이 USB를 전달하러 들러리 업체를 방문한 건설사 실무자는 공식 방문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들이 따낸 공사의 총 낙찰금액은 약 1조7645억원에 달한다.

3년간 담합으로 총 4군데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에 가장 많은 과징금 362억원이 부과됐다. 이어 한양 315억원, 삼성물산 292억원, SK건설 69억원 순이다.

공정위는 다만 기업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 등 3개사에는 과징금을 물리지 않았다.

/박선옥기자 psn@[illegible]

외환은행, 봄맞이 러브하우스 지원 외환은행은 지난 6일 마포구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인 '봄맞이 러브하우스' 현장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외환은행 리테일사업부 천문규 부행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실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환은행 제공

4월 분양 물량 4만1486가구, 2008년 이후 동월 최대

지난달 분양 실적이 2008년 이후 동월 기준 최대치로 조사됐다.

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가구 수는 총 76곳 4만1486가구다. 지난 3월 물량인 2만3164가구에 비해 1만8322가구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총 37곳 2만5882가구가 공급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9곳 2948가구 ▲경기 25곳 2만456가구 ▲인천 3곳 2478가구. 이 중 경기에서 공급된 물량은 4월 지방 전체 물량보다 4852가구나 많았다.

수도권 37곳 중 1순위 마감된 곳은 서울 4곳, 경기 6곳 등 총 10곳이다. 서울은 4곳 중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지구가 3곳이다. 경기는 6곳 모두가 신도시 택지지구다. 경기 화성시에서 분양한 동탄2신도시 A1블록 2차푸르지오에는 총 3만3194명의 1순위 청약자가 몰리며 수도권 내 인기몰이를 주도했다.

지방에서는 39곳 총 1만5604가구가 공급됐다. ▲전남 4곳 2435가구 ▲충남 4곳 2051가구 ▲전북 4곳 1889가구 ▲경남 6곳 14[illegible]가구 ▲경북 3곳 11[illegible]가구 ▲충북 3곳 1154가구 ▲세종 1곳 1002가구 ▲대전 1곳 [illegible]가구 ▲부산 4곳 [illegible]가구 ▲제주 3곳 942가구 ▲광주 3곳 823가구 ▲울산 1곳 189가구 ▲강원 1곳 171가구 ▲대구 1곳 132가구 순이다.

지방에서는 39곳 중 18곳에서 1순위 마감 단지가 나왔다. 부산 수영구에서 분양한 '부산 광안 더샵'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3만4496명의 1순위 청약자가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 4곳, 충북 3곳은 모두 분양 미달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책임연구원은 "5월 분양시장에도 5만여 가구 이상의 많은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며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더 많은 사업장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정원기자 [illegible]

‘소송’ 6년 족쇄 끊은 코오롱인더, 주가 꿈틀

듀폰과 아라미드 소송 종결
주가 전날比 0.62% 올라
年 400억 소송비 절감 등
영업익 상승 기대감 커져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아라미드 소송을 종결함에 따라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오롱인더는 6년간 듀폰과 첨단소재인 아라미드 개발 판매에 대해 소송 중이었으나 최근 모든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아라미드 사업에 날개를 달게 됐다.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오롱인더는 전날대비 0.62%(400원) 오른 6만5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오롱인더 주가는 올해 초 4만7400원에서 현재까지 37.5%나 급등했다.

코오롱인더는 지난 1일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서 2009년부터 듀폰과 벌여온 모든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코오롱인더는 아라미드 섬유 제품인 헤라크론을 계속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다.

양사 합의 조건은 코오롱인더가 일시 합의금 2만7500만 달러(2945억원)와 별사 벌금 8500만 달러(911억원)를 5년에 걸쳐 듀폰에 지급하기로 했다. 코오롱인더가 소송과 관련해 기존에 적립한 충당금은 7000만 달러(약 757억원)다. 이를 제외한 9억9000만 달러(약 3136억원)를 4년간 분납하게 된다. 연도별 예상 지급액은 2015년 1억1000만 달러, 2016년 3625만 달러, 2017년·2018년 4625만 달러, 2019년 5125만 달러다.

코오롱인더는 소송 합의로 막대한 양의 합의금을 물게 됐지만 아라미드 사업과 재무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다.

황유식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코오롱의 2015년과 2016년 추정EBITDA(법인세 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는 각각 6642억원과 5370억원으로, 합의금을 자체 현금흐름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연간 약 400억원 가량의 변호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북 구미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첨단섬유 아라미드 브랜드 '헤라크론' 생산현장. 코오롱인더가 최근 듀폰과의 아라미드 소송을 종결함에 따라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오롱그룹 제공

코오롱인더의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2.8% 상승한 1조3498억원, 전년동기대비 20% 상승한 60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어백과 코오롱플라스틱 등 산업자재 부문과 석유수지 등 화학부문의 판매 물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아웃도어 시장의 포화상태에 따른 성장 둔화로 패션부문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유통부문의 신사업 성장과 아라미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우려를 상쇄시켰다.

손영주 교보증권 연구원은 "소송 부담에 위축됐던 전사 제품의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해졌다"며 "이에 패션 부문 연착 분할 등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더해짐에 따라 실적 호조와 기업의 잠재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손 연구원은 기존의 7만2500원이던 목표가를 8만7000원으로 올려 잡았다.

박종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오롱인더는 듀폰과의 소송 합의로 꿈이 소재로 불리는 아라미드를 적극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코오롱인더는 올해 패션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 안정, 제품 가격 정상화로 타이어코드, 석유수지 부문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코오롱인더의 2015년과 2016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2578억원과 3173억원으로 올려 잡았다. 목표주가도 기존의 6만1500원에서 8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각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우리은행-키움투자자산운용 펀드개발 업무협약 우리은행은 7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키움투자자산운용과 상호 협력 촉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광구 은행장(사진 오른쪽)이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한 후 윤수영 키움투자자산운용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4월 외환보유액 3700억 달러

한달새 71억5000만 달러 ↑
9개월 만에 최대치 기록

한국은행은 4월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71억5000만 달러 증가한 369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9개월 만에 최대치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7월(3680억 달러) 이후 미국 달러의 강세로 유로와 파운드화 표시 자산의 달러화 환산 가치가 줄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을 자산 유형별로 보면 유가증권(국채·정부기관채·회사채·자산 유동화증권 등)이 3395억1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89억3000만 달러 늘었다. 유가증권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8%에 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인 SDR(209억7000만 달러)도 전달 대비 3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면 예치금(209억7000만 달러)과 IMF에서 교환성 통화를 수시로 찾을 수 있는 권리인 IMF포지션(14억6000만 달러)은 각각 18억3000만 달러, 3000만 달러 감소했다.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도 한 단계 상승한 6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8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순위이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코웨이, 경기 방어주로 매력 ‘쏠쏠’

하반기 中시장 진출 기대감
렌탈 수요 증가… 영업익 개선

환경가전서비스기업 코웨이가 올해 1분기 호실적과 함께 경기 방어주로 매력적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최근 공시를 통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003억1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됐다"고 밝혔다. 1분기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481억9600만원과 775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5%, 17.4%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코웨이 측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메트리스 등 전 제품군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역대 1분기 최대 렌탈 판매량(34만대)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코웨이는 ▲안정적인 제품 계약율 관리 ▲수요 해외 법인 성장세 유지 ▲홈케어 사업 매출 증가 ▲국내 화장품 사업 실적 개선 등을 호실적의 배경으로 꼽았다.

나은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5% 하회했으나 광고비가 1분기에 일부 선집행된 것을 반영하면 대체로 예상과 일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2분기 영업 실적도 원만한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정수기연 2분기에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1100억원을 예상한다"고 관측했다.

인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13년 신규 고객에 대한 가격인상 시점이 2분기였던 점에 근거할 때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상승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점은 올해 2분기 이후로 추정된다"며 "올해도 타십 시익안 렌탈 강화로 지난해 기록한 최고 판매치(133만대)를 넘어서는 142만대를 판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웨이의 올해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주력 제품인 정수기와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중국 정수기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코웨이는 자체 브랜드를 갖고 중국 정수기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공영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 시장의 정수기 보급률은 11%에 가까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국 시장에서 사업에 성공하면 주가 재평가(리레이팅)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 연구원은 "올해에도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렌탈 매출은 1조4900억원으로 전망되며 수출 부진이 예상되지만 렌탈 사업 호조로 영업이익률은 19.6%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코웨이의 배당 성향은 과거 50% 수준에서 올해 60%, 내년 70%로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매력적인 배당수익률과 더불어 기업자 기반 렌탈 사업 특유의 실적과 현금 창출력 등 실적구조가 경기방어주로서 매력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민지기자 m.nl

가스公, 영업익 감소에도 성과급 잔치

**작년 실적 악화·유가하락
영업익 4000억↓·부채 2조
이종호 사장 연봉 680만원↑
업무추진비도 두둑히 챙겨**

한국가스공사가 영업이익 급감과 부채 증가로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해외자원실적 저조와 유가하락으로 도시가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4000억여원의 영업이익 감소와 2조원 이상의 부채를 기록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가스공사는 실적 악화에 따른 자정 노력 없이 기관장은 물론 임직원의 연봉도 인상했다. 이종호 사장 직무대행의 연봉은 장석효 전 사장보다 680만3000원 올랐고 업무추진비 역시 5756만원 인상됐다. 감사와 이사 올해 연봉도 전년보다 544만원 인상됐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014년 1조719억원으로 전년 1조4882억원에 비해 4163억원(28%) 감소했다. 영업이익 감소는 유가하락에 따른 가스판매 실적 저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내 LNG 판매량은 3517만3000톤으로 전년 3867만5000톤보다 9.1% 감소했다. 해외자원개발 실적 저조도 한몫했다.

가스공사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자원개발에 10조6000억원을 투입했지만 1조6000억원 회수하는데 그쳤다. 9조원(56.2%)이 회수되지 않았다.

가스공사의 지난해 부채는 37조476억원으로 전년 동기 34조7335억원보다 2조3140억원(6.7%) 증가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이를 올해 기관장 연봉과 업무 추진비 직원 월급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사장 직무대행의 올해 연봉은 1억2756만원으로 전년 1억2076만원보다 680만3000원(5.6%) 올랐다. 업무추진비 역시 2956만9000원으로 전년 2380만3000원보다 5756만원(24%) 올랐다. 감사와 이사 올해 연봉도 1억205만원으로 전년 9661만원에서 544만원(5.3%)인상됐다.

직원 1인당 기본급과 평균보수액도 상승됐다. 올해 기본급은 4670만2000원으로 지난해 4385만2000원보다 285만원(6.4%) 인상됐다. 지난해는 2013년 4332만3000원보다 52만9000원(1.2%) 올랐다. 평균보수액도 올해 8330만8000원으로 지난해 7843만3000원보다 487만5000원(6.2%) 인상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연봉제도나 업무 추진비는 민간 기업과는 다르게 연초마다 기재부의 규정과 지침 절차에 따라 책정된다"며 "기관장과 직원의 임금 책정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더 준다거나 이익이 줄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삭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ssatch@metroseoul.co.kr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풀가동 체제에 들어간 LG전자 창원공장 에어컨 생산라인. /LG전자 제공

LG전자, 여름맞이 바쁘다 바빠

에어컨 생산라인 풀가동

LG전자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6월부터 창원공장 에어컨 생산라인이 풀가동 체제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프리미엄급 '휘센 듀얼 에어컨'은 제품 전면 상단에 탑재된 두 개의 냉기 토출구를 각각 제어할 수 있다.

최근 LG전자는 강력한 냉방성능과 알러지 유발물질까지 제거하는 휘센 벽걸이 에어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디자인은 더 슬림해진 스탠드형 휘센 에어컨 등을 잇따라 출시했다.

LG전자는 '휘센 듀얼 에어컨'과 프리미엄 공기청정기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 4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주는 등 구입 제품별로 다양한 캐시백 행사를 벌이고 있다.

/조현진기자 hjc@

中, 車 병행수입 시작… 국내 세단 빨간불

**15% 이상 할인 판매
차수출시장 먹구름**

중국 자동차 수출 시장에 복병이 나타났다. 올해 1월 중국이 자동차 병행수입을 합법화해 공식 수입하는 차 가격보다 15% 이상 저렴한 차가 유입되고 있다. 중국 내 수요가 높은 국내 고급 세단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작년부터 수입품 물가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병행수입은 수입업체들의 판매 독점을 타파하고 민생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로 도입됐다. 경쟁을 통해 수입품의 가격을 내린다는 취지다.

중국에 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와 중국 현지 업체가 50:50으로 자금을 출자해 만든 공식 합작 법인을 통해야 했다. 그러나 병행수입 제도가 도입된 후 병행수입업자들도 중국에 수입 차를 들여와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2월 15일부터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내에서 병행수입 자동차가 시범 판매됐다. 총 물량은 8만~10만대로 추정된다.

상하이자유무역구 전경. /신화·연합뉴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현재는 국내 브랜드의 중국 병행수입 물량이 적어 직접적인 영향이 적지만 차후 한·중 FTA에 자동차가 포함된다면 병행수입이 국내 완성차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겐 위기"라고 설명했다.

국내 차 중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기아자동차의 K9 등은 현지의 고급 세단 수요 증가와 함께 주목받는 품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차종은 중국 내 생산 물량 없이 한국에서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병행수입 업체들이 특별히 선호하고 있다.

병행수입을 통해 판매되는 K9은 약 9000만원 수준이다. 중국 내 K9의 공식 가격은 약 1억3000만원으로 병행수입 업체가 약 15% 가량 싼 가격에 판매 중이다.

중국의 자동차 병행수입 규모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에 따르면 주민(朱民)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관리위원회 부주임은 지난 달 27일 열린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이 프로젝트의 시범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소리기자 Yesound@

효성 재무본부장에 이용주 前 금호아시아나 전무

효성은 7일 이용주(사진)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무(53)를 재무본부장(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사측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여수고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러커스 뉴저지주립대학에서 경영대학원을 마쳤다.

1987년 금호그룹에 입사해 30여년 동안 국제금융팀장, 구조조정팀장, 기획·재무담당 임원을 역임했다.

금호그룹의 베트남 프로젝트, 대우건설·대한통운 인수작업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재무전문가로서 추진력이 강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효성은 이 부사장 영입에 대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비서실장 출신의 노재봉 전 재무본부장(부사장)은 비즈니스 현장 경험을 통해 경영인으로 한층 넓히는 차원에서 산업부인 산업자재PG 테크니컬얀PU장으로 보직을 변경됐다고 사측은 전했다.

/이승용기자

삼성SDI, 태양광 저장장치로 시장공략… 날씨 걱정 끝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는 태양광 발전의 약점은 날씨에 따른 전력 생산 편차다.

삼성SDI는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에도 걱정 없는 태양광 저장장치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7일 삼성SDI에 따르면 석탄, 우라늄, 가스, 석유, 풍력 등 연간 전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15TW(테라와트) 이상이다.

지구에 1년간 입사되는 태양광은 8만6000TW 규모에 이른다.

하지만 태양광은 기후 조건에 따라 전력의 품질이 고르지 않고, 공급되는 전력량도 일정하지 않다.

때문에 전력을 저장해 뒀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ESS(에너지저장장치)와 연계활용으로써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날씨가 좋은 날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해 뒀다가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가정용 ESS는 송전망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연결해 에너지 절약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ESS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세계 태양광 시장 전망

삼성SDI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ESS 올인원 솔루션을 독자해 유럽, 일본, 미주 가정용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축구장 400개' 삼성 평택반도체단지 첫 삽

<289만㎡ 규모>

1기 라인 15조6000억 투입 단일 투자 사상 최대 규모

삼성전자가 7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라인 건설에 착수했다.

'미래를 삽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 윤상직 산업부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공재광 평택시장,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고객사 등 약 600여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는 총 부지 면적이 289만㎡(87.5만평)이다. 이는 축구장 약 400개 넓이에 해당하며 국내 최대 반도체 생산 단지인 기흥·화성 단지를 합한 면적(91만평)과도 맞먹는 규모다.

삼성전자는 우선 79만㎡(23.8만평)를 활용해 인프라 시설과 첨단 반도체 라인 1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다. 2017년 상반기 가동 예정이다.

1기 라인 건설을 위해 총 1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단일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1기 라인 완공 후 이 곳에 입주할 인력 수는 3000명이다.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시황에 따라 추가 활용과 투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기술 불모지에서 시작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평택 반도체 단지가 미래창조경제 구현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권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차질 없이 평택 반도체 단지를 착공할 수 있었다"며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는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 투자가 결정됐다.

정부는 반도체 단지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을 2016년 말까지 조기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산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지원을 했다.

/평택=유선준기자 ysw@metroseoul.co.kr

7일 오전 경기도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에서 열린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 기공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함께 기공 발파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제공

한국지엠, 인도이전설에 '삼중고'

<생산·영업·판매실적 악화>

올 누적 판매대수 10% '뚝' 수출실적 전년比 14% 급감

제너럴모터스(GM)가 아시아 수출기지 역할을 한국에서 인도로 부분 이전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지엠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

한국지엠은 당분간 인도 이전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생산과 영업·판매 실적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사측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4월 내수 1만2687대, 수출 4만59대 등 총 5만2746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동월 대비 내수는 3.0% 줄고, 수출은 14.6% 급감해 총 12.1% 감소한 규모다.

올해 1~4월 누적 판매대수는 내수 4만6922대, 수출 19만1095대 등 총 19만8017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내수는 1.1% 줄었지만, 수출이 14.0%나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11.2% 줄어든 수치다.

생산실적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연간 생산량은 2004년 115만대에서 2014년 63만대 규모로 줄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IHS는 한국지엠의 연간 생산량이 2025년이면 36만5000대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해 연결기준 14조279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 18조3763억원 대비 22.3% 감소한 수치다.

이같이 한국지엠의 생산과 판매, 영업 실적이 모두 줄어든 데는 인도 등에 비해 낮은 효율성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업계 안팎에서는 한국지엠의 인건비 부담 심화과 노사 문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업봉기자 [illegible]

제조사 리베이트… '공짜폰 이벤트' 여전

점유율 경쟁에 혈안 대리점과 암거래 성행

삼성전자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 촉진을 위한 우회적 보조금 즉 리베이트가 예전히 암암리에 성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 A씨는 스마트폰 판매 관행에 대해 "국내 단말기 유통 시장의 기형적 구조에서 블랙리베이트가 기인한 것"이라며 "국내 제조사들의 '장난질'로 단말기 공짜대란이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단말기 유통구조는 이동통신사의 직영점과 대리점, 판매점으로 이뤄져있는데 자체 사업자로 운영되는 대리점과 판매점은 문자나 온라인 반짝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말기보조금을 살포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뒷 배경에는 제조사의 리베이트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제조사들이 단말기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경쟁사의 신제품이 나올 때 단말기 리베이트는 한시적으로 늘어 경쟁사 제품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거나 신제품이 나오기 앞서 이전 시리즈 제품의 리베이트를 높게 책정해 줘 경쟁사 제품의 판매율을 끌어 내린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예컨대 LG전자의 G4가 출시되면 삼성은 기존의 갤럭시S5 등 시리즈를 통신사에게 물량을 제공할테니 통신사도 지원금을 높여 판매를 유도하자고 제안한다"며 "대리점에 경쟁사보다 리베이트를 두 배 올려줄테니 주력해서 판매해 달라는 뒷거래도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가의 출고가를 공시하지만 판매량 상승을 위해서는 지원금과 리베이트가 있어야 소비자가 반응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 아래 리베이트 값을 올렸다 내렸다하면서 통신시장을 흔든다는 것이다.

A씨는 "최근 삼성카드에서 진행한 갤럭시S6 시리즈 이벤트가 한 예"라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부터 삼성카드에서 1000명에 한해 KT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갤럭시S6 시리즈를 구입하면 매달 통신요금을 1만5000원 깎아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그간 침체됐다던 이동 시장의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행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마감될 정도로 활기를 띠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같은 리베이트가 있다는 첩보는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간헐적인 점조직 형태라서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문경기자 hm0108@

한 판매점의 단말기 판매 반짝이벤트 문자

삼성전자, 프리미엄 키친 새 장 연다

셰프컬렉션 라인업 완성

삼성전자는 '셰프컬렉션 풀 라인업'을 공개하고 국내 빌트인가전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부를 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015 삼성 셰프컬렉션 미디어데이'를 열고 냉장고, 인덕션 전기레인지,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으로 구성된 셰프컬렉션 빌트인 라인업을 공개했다.

윤부근 삼성전자 소비자가전부문 사장은 "셰프컬렉션 빌트인은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한 단계 진화한 빌트인 솔루션"이라며 "삼성전자는 올해를 국내 빌트인 확대의 원년으로 삼아 2018년까지 국내 빌트인가전 시장을 두 배 이상 성장시키고 프리미엄 빌트인 시장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셰프컬렉션 빌트인은 ▲미세정온 기술과 삼님찬 하님을 2도어 냉장고 ▲버큐얼 플레임을 적용한 인덕션 전기레인지 ▲고메 베이퍼 기술을 적용한 전기오븐 ▲워터월 세척방식을 채택한 식기세척기 등으로 구성된다.

/정은미기자 [illegible]

현대重, 선박 연료 향상 장치로 연 8억 절약

현대중공업은 선박 연료효율 개선장치인 '하이핀(Hi-FIN)'의 성능 검증을 마치고, 전 선종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하이핀은 프로펠러 중심부(허브)에 부착하는 바람개비 형태의 장치다. 프로펠러 뒤쪽은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해 추진 효율을 떨어뜨리는데, 하이핀은 프로펠러와 반대 방향의 와류를 생성함으로써 프로펠러의 와류 현상을 상쇄해 추진 효율을 높여 준다.

사측에 따르면 하이핀을 장착한 선박은 최대 2.5%의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선박의 평균 수명을 25년으로 보면 연료 절감액은 약 1900만 달러(한화 206억5870만원)에 달한다.

/양소리기자 [illegible]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연료효율 개선장치인 하이핀(Hi-FIN)이 선박 프로펠러에 장착돼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

통화·문자, 2만원으로 마음껏 즐긴다

KT 오늘부터… SKT·LGU+ 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키로

최저 월 2만원대 요금으로 휴대전화 긴 음성통화 문자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른바 음성통화·문자 공짜 시대가 왔다.

KT는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면서 데이터 이용량을 선택하는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도 조만간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KT는 7일 서울 광화문 KT 본사에서 열린 마케팅 기획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에 선보인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2만원대로 음성·문자 무한 사용은 물론 데이터만 선택해 최적의 요금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계 통신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규택 KT 마케팅부문 부사장은 "음성·문자 사용량과 데이터 사용량에 비례하는 기존 요금제는 사용자에게 비효율적인 요금제라 판단"했다며 "음성통화와 문자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면서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의 요금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새 요금제는 2만원대 스마트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음성통화와 문자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2만원대 요금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고를 수 있는 최저 요금제다.

또 현재 5개 구간인 국내 휴대전화 데이터 구간은 7개 구간으로 확대돼 사용자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매달 사용자의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당겨 쓰거나 넘겨 쓸 수 있어 데이터를 낭비하는 일이 적어진다.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2만~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인터넷 사용량은 적은데 음성통화량이 부족해 필요도 없는 고가 요금제를 썼던 택배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등 생계형 전화 사용자들도 통신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정보기술(IT) 업체들의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KT가 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요금제의 포문을 열게 됨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비슷한 방식의 요금제를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들의 데이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런 이용 패턴에 맞는 새로운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인가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만원대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비롯해 경쟁사 대비 고객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등을 담은 미래형 요금제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경감 및 고객혜택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문경기자 hm1@metroseoul.co.kr

콤팩트 SUV '뉴 아우디 Q3' 출시

옵션 따라 4가지 선택 가능

아우디 코리아(대표 요하네스 타머)는 부분변경으로 새로운 디자인과 파워트레인을 적용한 '뉴 아우디 Q3'를 7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사측에 따르면 아우디 Q3 시리즈는 2011년 시장에 처음 선보인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이다.

이번에 출시된 뉴 아우디 Q3는 유로 6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새로운 3세대 2.0 TDI 디젤 엔진과 7단 S 트로닉 자동 변속기,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 콰트로가 장착됐다.

엔진 출력에 따라 최고 출력 및 최대 토크가 150마력, 34.7kg·m인 '뉴 아우디 Q3 30 TDI 콰트로'와 184마력, 38.8kg·m인 '뉴 아우디 Q3 35 TDI 콰트로'로 나뉜다.

내외장 디자인 및 옵션 사양에 따라 자광의 디자인을 강조한 디자인 라인과 보다 스포티한 콘셉트를 강조한 스포트 라인으로 각각 구분된다.

엔진과 디자인, 옵션 선택을 통해 4가지 다른 뉴 아우디 Q3를 만날 수 있다.

뉴 아우디 Q3의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뉴 아우디 Q3 30 TDI 콰트로' 디자인 라인 5190만원, 스포트 라인 5250만원이다.

'뉴 아우디 Q3 35 TDI 콰트로'는 디자인 라인 5590만원, 스포트 라인 5650만원이다.

/이윤희기자 yoon@

두산그룹, 네팔 지진에 30만불 상당 건설상비 지원

두산그룹(회장 박용만)은 네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30만 달러 상당의 건설장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장비는 굴삭기, 휠로더 등이다. 두산은 건물 및 도로 붕괴로 혼잡한 현지 상황을 고려해 좁은 공간에서 작업이 용이한 밥캣 소형 건설장비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측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네팔과 가장 가까운 두산인프라코어 인도법인 등을 통해 피해지역인 카트만두에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구작업 기간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다량의 소모부품도 함께 공급해 장기간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두산은 지난 2005년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8년 중국 쓰촨 대지진, 2010년 아이티 대지진, 2011년 일본 대지진, 2013년 필리핀 태풍 재해 등 세계 각 지역의 대형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건설장비와 성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윤희기자

SKT 'T전화 2.0' 고객체험단 모집

SK텔레콤이 All-IP 기반의 차세대 통화 플랫폼 'T전화'를 업그레이드한 2.0버전 고객 체험단을 모집한다.

SK텔레콤은 고객들에게 T전화 2.0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T전화 2.0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T전화 2.0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30명이며 모집 기간은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로 T전화 지원 단말을 가지고 있는 SK텔레콤 가입자들 중에서 응모가 가능하다.

지원은 T전화 사이트(www.skt-phone.co.kr)에서 가능하다. 선발된 체험단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4일간 T전화를 체험해 본 후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개인 SNS를 통해 자신의 체험담을 소개할 예정이다.

체험단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되며 우수 체험기 작성자에게는 기념품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T전화 2.0의 기획·운영 과정에서 고객 자문단을 적극 활용해 고객의 '진짜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T전화는 SK텔레콤이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통화 플랫폼으로 지난 3월 이용고객이 5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정문경기자

SK케미칼 '혈액제' 시장 공략 나선다

안동 바이오단지서 기공식

SK케미칼은 7일 안동시 풍산읍 바이오산업단지에서 SK플라즈마 혈액제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권영세 안동시장과 김광림 국회의원, 박만훈 SK케미칼 박만훈 사장, 한병로 SK케미칼 대표, 김정대 SK플라즈마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사측에 따르면 3년간 1000억원을 투자하는 SK플라즈마 혈액제공장은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내 대지면적 3만1000㎡ 규모로 건설된다.

혈액제 의약품 제품을 생산하는 SK플라즈마의 생산기지로 안동의 바이오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SK케미칼은 기대했다.

한 대표는 "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안동에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해 안동지역의 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바이오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안동을 중심으로 바이오 백신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양흥기자 yang@

7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 모델들이 '스마일 어게인 패키지'를 소개하고 있다. 어버이날을 맞아 10일까지 열리는 '스마일 어게인 패키지'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결합해 관계자 구입 시 전문가가 만든 해독주스와 꽃을 직접 배달해준다. /뉴시스 제공

올해산 마늘 가격 전년비 30% ↑

지난해 폭락했던 마늘 가격이 올해는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난지형 마늘(10kg/상)의 올해 가격은 전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햇 마늘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5월 가격 역시 전년보다 30% 가량 높은 3만5000~3만7000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마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데는 지난해 마늘 가격 하락 영향이 크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분석이다. 농가들이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면서 재배면적과 출하량이 감소한 것.

실제로 통계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만6388ha로 전년(2만9062ha) 보다 17.6% 감소했다. 이때문에 올해 마늘 생산량은 31만3000톤으로 전년(35만 3000톤)보다 약 1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롯데마트는 마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자 20일까지 전점에서 올해 첫 수확한 햇 마늘(50개/반접)을 시세 대비 15% 가량 저렴한 1만1000원에 판매한다. 이번 행사를 위해 제주·고흥·창녕 등 마늘 유명 산지들과의 사전 계약을 통해 총 30톤 가량의 햇 마늘 물량을 확보했다.

신라호텔, 국내 '★★★★★' 호텔

7일 서울 중구 호텔신라(사장 이부진)에서 국내 최초의 5성급 호텔 현판식이 열렸다.

호텔신라는 지난 3월 전문가 3명이 참여한 현장평가에 이어 전문가 1명과 소비자 평가요원 1명이 각각 시행한 암행평가를 모두 통과하면서 첫 5성급 호텔로 탄생했다.

관광호텔 5성 등급은 현장평가 700점, 암행평가 300점 등 총 1천점 만점에 90% 이상 점수를 받는 호텔에 부여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생건, 장애인고용 자회사설립 협약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한다.

LG생활건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7일 종로구 새문안로 소재 LG광화문 빌딩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인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CJ, 1Q 장사 잘했다

내수 경기 침체에도 영업익 85% ↑… 1826억원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재선)이 내수 경기 침체에도 올해 1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했다.

CJ제일제당은 1분기 매출 1조1992억원, 영업이익 1826억원을 달성, 전년 동기대비 각각 10.9%, 84.8%가 늘었다고 7일 밝혔다.

대한통운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은 22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조1198억원으로 10.57%, 당기순이익은 1000억원으로 90.16% 늘었다.

회사 관계자는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 영향에도 불구하고 메치오닌 등 신규 아미노산의 판매 호조로 바이오 부문 실적이 회복세를 보였다"며 "전 사업부문에서 고강도 구조혁신활동을 지속한 결과가 전사 수익성 개선 효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제약과 바이오를 아우르는 생명공학부문의 1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1.1% 상승한 5076억원을 기록했다. 하락세를 보이던 바이오 부문 매출이 지난해 4분기부터 성장세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에 성장세를 유지하며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바이오 사업부문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663억원 늘어나 흑자로 전환됐다. 제약부문은 부진제품을 정리하고 신규 전문의약품(ETC) 위주의 판매에 주력해 영업이익이 늘었다.

식품부문의 1분기 매출은 1조48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7% 증가했다. 2013년부터 지속하고 있는 가공식품 분야의 구조혁신 활동의 효과가 본격화돼 매출이익(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12.9% 상승했다. 특히 알래스카 연어캔과 비비고 냉동제품군 등 최근 1~2년 사이 출시된 신제품의 판매 호조세에 힘입어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김철하 대표

생물자원 부문의 매출은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주요 해외 사장의 사료 매출이 늘며 전년 대비 16% 증가한 443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에서의 사업구조 혁신 효과와 베트남 사료 매출 증가가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기술 혁신제품에 집중하며 글로벌 사업 확대로 성장을 본격화하는 한편 원가 절감과 수익성 중심의 영업활동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라기자 bora@metroseoul.co.kr

홈쇼핑 '가짜 백수오' 환불 난색

오늘, 보상안 종합 발표
소비자 단체소송 움직임

홈쇼핑 업계들이 '가짜 백수오' 환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계들은 8일 소비자 피해 보상안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전면적인 환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심으로 백수오 환불에 대한 법률 상담과 단체소송 준비 카페들이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

이들은 백수오 제품을 대량 판매해온 홈쇼핑 업체들이 환불 요구에 미온적인 데 대해 불만을 쏟아내며 집단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 업계들은 '가짜 백수오' 파문에 배송 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해주는 일반 환불 규정을 적용하며 버텼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이전에 유통된 백수오 제품은 어때 환불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고조되는 소비자 비난 여론에 소비자원도 지난 4일 홈쇼핑 업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원과 식약처의 조사 이전에 판매된 제품 전체를 환불 대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도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홈쇼핑업체들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환불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업체마다 처한 입장이 달라 환불 수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해에만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약 900억원어치가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만큼 본격적인 환불과 손해배상이 시작되면 업계 별로 수백억원의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쇼핑 업계 한 관계자는 "백화점 대형마트는 판매액이 크지 않아 구매 시점, 개봉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환불해줬지만 홈쇼핑 업계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환불과 관련된 대책을 세우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홈쇼핑 업계들이 비난을 지더라도 1차 과실은 내츄럴엔도텍에 있다"며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장폐지 수순이 뻔한 상황에서 피해액은 고스란히 홈쇼핑이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y@

SK네트웍스, 스티브J&요니P·SJYP 인수

SK네트웍스(대표 문종훈)가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스티브J&요니P'와 세컨드 브랜드인 데님 레이블 'SJYP'를 인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사 측은 "오브제를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후 다수의 유망 국내외 패션 디자이너들이 러브콜을 보내왔으며, SK네트웍스 역시 한국 패션의 글로벌화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투자처를 물색하던 중 스티브J&요니P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해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티브J&요니P는 2006년 런던 컬렉션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매 시즌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컬렉션을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하이엔드 디자이너 레이블이다.

'SJYP'는 데님은 곧 청바지라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상상력을 자극하게 하는 상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시하는 세컨 브랜드다.

회사 측은 이번에 인수한 브랜드를 제2의 오브제·오즈세컨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SK네트웍스는 2007년 오브제와 오즈세컨을 소유한 (주)오브제를 인수해 연매출 400억원 규모의 사업을 2000억원 규모로 성장시켰으며 전세계 19개국에 진출했다.

안도미키 | 엘레나 라디오노바 | 가와구치유코&알렉산더 스미르노브 | 드미트리 드미트렌코

ISU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1위 | ISU 세계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1위 | ISU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 1위

세계 최정상 피겨스타들의 환상의 무대!

볼쇼이 온 아이스

2015.4.28~5.24 목동아이스링크

주최/제작 | (주)공연타임스 후원 | THE MVL HOTEL 협찬 | 마리가장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예스24 1544-6399 (주)랑 1666-8662 단체문의 | 1588-0786

7일 SPC그룹 조상호 총괄사장(앞줄 가운데)과 윤호중 제노인종합복지관장(앞줄 왼쪽부터 네 번째)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SPC그룹 창립 70주년과 어버이날 맞이 효순잔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PC그룹 제공

교복 모자라 '전전긍긍'

교복업체들, '하복' 납품기한 못 맞출까 걱정
제도 시행 학교 중 절반은 업체 선정도 못해

올해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제가 시행된 가운데 입찰을 완료하지 못한 학교가 많아 하복을 입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나라장터 교복 입찰 개찰 결과(4월1~30일)를 살펴본 결과 총 647개의 입찰 공고 중 개찰이 완료된 학교는 272개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이 유찰됐다. 일부는 재공고를 냈음에도 교복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다.

학교주관구매제도는 교복 가격 안정화를 취지로 시작됐다. 학교가 품질 검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을 구매하는 것이다. 학교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를 올리고 교복 업체가 제안서를 내면 학교가 선정하는 방식이다. 교복비의 거품 제소를 위해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충남 천안 소재 한 고등학교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입찰을 실시했지만 단독 응찰로 교복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달 말부터 하복을 입어야 하지만 유찰되자 이 학교는 하복 착용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낙찰 기간이 늦어질 수록 교복업체는 물량 공급에 타격을 입게 된다.

이미 발주를 한다고 해도 하복 때 둔 물량이 모자랄 경우 납품 기한을 맞추기 힘들다. 일부 미리 납품할 수 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복업체도 전 물량이 확보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하복을 제때 사지 못해 동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납품 기한을 미뤘다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은 "4월 30일자로 기한을 정해놓기는 했지만 공고를 늦게 낸데 따른 물량 확보 시간을 주기 위해 납품 기한을 6월 중순까지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교복 업계들의 재고 부담도 크다. 하복의 경우 동복을 입는 시기에 미리 발주를 하는데 학생수를 예측하기 힘들어 재고가 모자르거나 남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낙찰받은 이후 발주를 하면 재고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원단 제작만 2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제때에 납품하기 어렵다. 영세한 업체일 수록 그 피해는 더 클 전망이다.

낮은 가격도 문제다. 교육부 발표에 지난해 학교주관구매제의 전국 평균 낙찰가는 16만8490원으로 개별구매 평균가보다 34%(8만6435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낙찰받은 업체들은 대체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써냈다.

한 교복업체 관계자는 "작년보다 납품 가격이 30~40% 낮아졌는데 재고 부담 때문에 싼 가격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며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학생들이 우리 가게에만 와서 교복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서 손해를 보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고를 털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고 싼 가격에 넘기는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영세한 업체들은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교복업체 관계자는 "주관구매제도 외에 자율구매제도도 병행하고 있어 유찰된 곳은 자율구매제로 하복을 구입해서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교복 학교주관구매제와 관련해 스마트학생복, 아이비클럽, 엘리트, 스쿨룩스 등 4대 대형 교복업체들의 담합 의혹이 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국내 교복 시장은 약 4000억원대로 이들 4대 브랜드가 약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화장품 수출 18억달러, 전년비 40%↑

화장품 수출이 한류에 힘입어 고속 성장을 거듭, 수입의 두배에 육박하고 있다.

한류 열풍으로 중국, 홍콩,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화장품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수출은 18억7만 달러로 전년보다 40.3% 늘었다. 반면 지난해 화장품 수입은 10억4756만 달러로 전년보다 7.8%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은 8조9704억원으로 전년보다 12.5% 증가했다.

화장품 수출은 최근 5년 평균 성장률이 34.3%에 달했다. 지난해 화장품 무역수지는 2012년(8926만 달러 흑자)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한 7억525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제조한 화장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중국과 홍콩으로 전체 수출 실적 점유율 54.8%에 달했다.

중국(5억3360만 달러), 홍콩(4억5253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각각 86.8%, 69.7% 늘었다.

이어 일본(1억8766만 달러), 미국(1억2442만 달러), 대만(1억689만 달러), 태국(7781만 달러) 등의 순으로 수출이 늘었다.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은 최근 5년 평균 10%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생산실적은 2010년(6조146억원)보다 약 50% 늘어났다.

동서식품 '트레블 위드 맥심' TV 광고

동서식품(대표 이광복)은 '한잔의 커피는 한번의 여행입니다'라는 내용의 '트레블 위드 맥심' 캠페인 TV광고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광고에서는 카누와 맥심 모델로 활동중인 공유와 안성기, 이나영이 각기 다른 세 편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광고 속 주요 메시지는 '일상 속에서 커피 한잔으로 여유를 얻자'다.

휴대폰이 울리자 비행기 탑승모드로 바꾸며 커피 한잔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공유와 늦은 밤 공원 산책을 통해 여유로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준 안성기와 직장인의 오후를 보여준 이나영 등 다양한 상황이 소개된 이번 광고는 '한잔의 커피는 한번의 여행입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통해 각자의 행복을 찾아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샘표 '백년동안' 건강식품 브랜드로 확장

샘표(사장 박진선)는 기존에 현미발효흑초 제품에만 국한됐던 '백년동안' 브랜드를 건강식품 전반에 걸친 전문 브랜드로 확장한다고 7일 밝혔다.

백년동안은 이달 중 수세미 엑기스를 홈쇼핑 전용 제품으로 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건강식품 제품군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산수유·석류·산머루·복분자·블랙베리·블루베리 등(순) 발효흑초 원액 100% 등 마시는 흑초 제품으로 4종이 출시됐다.

1인 가구 시대… 편의점 간편식 무럭무럭

비용절감·편의성 등 인기
다양한 상품 출시 잇따라

#지난해부터 독립해 살고 있는 직장인 송영선씨는 하루 한 끼는 편의점 간편식으로 해결한다. 바쁜 아침 출근이나 늦은 퇴근에도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식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독립생활 초반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지만 버리는 음식도 많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든다는 생각에 이제는 편의점 간편식을 애용한다.

송 씨와 같은 1인 가구가 늘면서 편의점 도시락, 삼각김밥 등과 같은 간편식 인기가 고공행진 중이다.

7일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간편식 연도별 매출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매년 20% 내외의 성장을 기록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라면이나 샌드위치 보다는 간편하면서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 주목받으면서 즉석조리상품, 냉장식품 등 냉장 간편식의 매출이 최근 3년 평균 33.6% 증가했다.

GS25는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4분 내에 계란찜을 즐길 수 있는 간편계란찜 세트를 출시했다. 이 상품에는 친환경 1등급란 2개와 밑간이 돼 있는 육수, 야채 후레이크 등이 들어 있다. 소비자는 계란을 깨서 풀고 육수와 후레이크를 섞어 전자렌지에 돌리면 뜨끈한 계란찜을 맛볼 수 있다.

GS리테일 편의점 신선식품팀 김진명 MD(상품기획자)는 "1~2인 가구 증가로 편의점 간편식 매출이 늘면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있다"며 "수차례 실험을 진행한 끝에 어머니가 해주신 것과 같은 계란찜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씨유와 세븐일레븐은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밥류 상품에 집중하고 있다.

씨유는 최근에 차가운 반찬과 따뜻한 반찬을 구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해 '국민 9찬 한상 도시락'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구이·전·튀김·볶음·나물 등 9가지 반찬으로 구성돼 집밥처럼 푸짐하게 맛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여기에 기존 도시락과 달리 젓가락 외에도 숟가락까지 동봉해 편의성을 높였다.

세븐일레븐은 즉석밥 판매 1위 업체인 CJ제일제당과 제휴해 '스팸김치덮밥', '제육김치덮밥' 등 상품 6종을 판매중이다. 이들 상품은 국이나 탕과 같이 한 가지 반찬만 들어있던 기존 상품의 단점을 보완해 밥과 반찬을 함께 구성했다.

/정은미기자

치주전문의가 말하는 잇몸질환 모든 것

늘 치아가 아프면 고민을 한다. 환자들은 치아가 아픈지 잇몸이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예메가있는치과 치주전문의 이정태(사진) 대표원장으로부터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들어보자.

1 잇몸질환의 증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칫솔질 할 때 피와 고름이 나오고 붓거나 치아가 흔들린다. 평소 구취가 심하다. 몸의 컨디션이 안좋을 때 치아가 들뜨거나 욱씬한 통증이 동반된다.

2 잇몸질환은 무엇인가?

잇몸속의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은 녹이는 질환이다. 심한 경우에는 뼈가 다 녹아 치아가 많이 흔들려 뽑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원인은 무엇보다 칫솔질이 적절히 안 되었을 경우 발생한다. 치아와 잇몸사이의 틈에 음식물이 끼고 이곳에 세균이 증식되어 염증을 일으켜 잇몸과 치아를 잡고 있는 치조골을 파괴시키는 질환이다.

3 잇몸질환의 원인은?

대표적인 치과질환은 충치와 치주질환이다. 치주질환은 보통 잇몸질환으로 지칭된다. 따라서 주된 치과질환은 치주질환이다. 이러한 치과질환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첫 번째, 유전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다. 선천적으로 약하게 타고나는 가족력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잦은 치과질환을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 구강 위생 습관이다. 아무리 유전적으로 약하게 혹은 강하게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구강 위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치과 질환은 발생하게 된다.

세 번째, 환경적인 요소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신질환(당뇨, AIDS, 결핵등 기타 소모성 질환) 스트레스, 음주, 흡연 등의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질환은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게 된다.

첫째와 셋째의 원인들은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다. 따라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구강 위생 습관을 바꾸어야만 한다.

예방 1원칙 '올바른 칫솔질'
칫솔모는 치아와 평행하게
벌어진 치아엔 치간칫솔 필수

4 올바른 칫솔질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칫솔질의 요령은 칫솔모를 치아에 통통하게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에 칫솔모가 들어가도록 위치시킨 후 가볍게 진동을 주는 식으로 닦으면 된다.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의 벌어진 부위는 치간 칫솔을 이용하여 치아에 붙어있는 음식물과 세균의 덩어리인 치태를 제거하면 된다. 그러나 가정에서 직접 해보면 방법 자체가 어려워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 치과의사나 치과 위생사의 도움을 받아 칫솔질을 배워야 실천이 가능하다.

5 잇몸질환은 어떻게 치료하나?

잇몸질환의 치료는 이러한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에 끼어 있는 세균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조기나 중기 잇몸질환의 경우 환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칫솔질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치은염은 치아를 지지하는 치조골까지는 파급되지 않고 치조골을 덮고 있는 잇몸에만 염증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증상은 잇몸이 약간 붓고 빨간색을 띠며 칫솔질 할 때 피가 난다. 이러한 경우의 치료는 스케일링과 칫솔질 방법의 개선으로 증상의 개선과 치주염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조기 치주염은 약간의 치조골 소실과 잇몸의 염증을 동반한다. 이 경우 환자는 치은염의 증상 외에 구취와 통증을 호소한다. 치료법은 국소마취 후에 치아와 잇몸 사이와 치아의 뿌리에 붙어 있는 세균들을 기구를 이용해 제거하는 것이다. 물론 스케일링과 칫솔질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기와 말기 치주염은 치조골 소실이 심한 경우로 심한 통증과 치아의 움직임을 호소한다. 치료법은 국소마취 후에 잇몸을 벌린 후 치아 뿌리에 붙어 있는 세균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심하면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치주염의 단계에 따른 모든 치료법은 적절한 구강위생이 선행되지 않는 경우 질병이 재발한다.

6 잇몸질환은 어떻게 예방하나?

잇몸질환은 완치가 되지 않는 질병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입안에 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완벽하게 칫솔질과 치료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 검사를 받고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최치선기자 chlsunl@metroseoul.co.kr

강강술래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 전하세요"

한우곰탕 60%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민)는 보양식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15일까지 온라인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며 상온보관이 가능한 한우사골곰탕 소용량박스(350㎖ 10팩)는 2만5200원, 중용량박스(500㎖ 10팩)는 2만8600원, 대용량박스(800㎖ 10팩)는 4만3200원에 각각 60% 할인 판매한다.

어버이날 감사세트(한우불고기50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750g+숯래양념520g)는 36% 할인된 6만원, 영양만점세트(한우떡갈비360g+흑염자한돈나베아니360g+통등심돈가스720g)는 40% 할인된 4만2000원에 판매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인테리어와 모든 것 과 '하루에 한동작 비법지' 등 길도서도 증정한다.

/[illegible]

미숙아 비만·대사질환 유발 단백질 발견

이대목동병원 김영주 교수팀

국내 연구팀이 조산으로 태어난 미숙아가 어른이 되었을 때 비만과 대사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후보 단백질을 발견했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사진) 교수팀과 중앙대 동물자원학과 방명걸 교수팀은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나 체중이 적은 미숙아가 어른이 되었을 때 비만과 대사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팀은 이들 질환을 일으키는 후보 단백질을 발견한 연구 결과를 프로테오믹스(Proteomics)라는 유전공학잡지 인터넷 판 4월호에 게재했다.

6년근 홍삼 농축액… 면역력 증진·혈행개선

동국제약 '홍삼정보'

잇몸약 인사돌로 잘 알려진 동국제약(대표이사 이영욱)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건강 선물로 적합한 건강기능식품 '홍삼정보(사진)'와 산삼 '배양근 플러스100'을 출시했다.

'홍삼정보'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6㎎/3g 인 프리미엄 6년근 홍삼농축액 제품으로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혈행개선, 기억력개선, 항산화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산삼 '배양근 플러스100'은 오대산 100년근 천종삼을 배양한 최우지 타입의 산삼 배양근 농축액이다. 유전적으로 산삼과 99%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균, 농약, 중금속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라이프 키퍼' 남녀노소 화재 대피 걱정 끝

노디스, 방연마스크 개발

아파트나 지하철 화재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방독면이다.

하지만 지하철역사에 비치되어있고 일반 유통되는 제품들은 구조가 복잡하고 커서 화재 시 효용성과 실용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안경을 쓴 사람이나 어린이 노약자, 환자들은 착용 혼란을 일으켜 착용이 어렵고 불편하다.

(주)노디스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간이형 호흡보호구) 라이프키퍼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만든 전문 제품이다. 노디스는 정부에 의해 신기술기업으로 벤처인증을 받고 10여년 동안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생존을 위한 전문용품을 개발하고 국내외에 보급을 해왔다.

라이프키퍼는 남녀노소, 노약자, 환자, 장애인, 안경 낀 사람 등 모든 국민이 갑작스런 화재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명분한 제품 콘셉트'를 기진 세계 최고의 질진용 전문제품이다. 제품구입 문의전화 1588-4014

안전보건공단, 주한미군 이전공사 지원

건설재해예방 업무협약

전국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과 관련해 공공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약이 추진되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6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 회의실에서 김기수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장과 '건설재해예방 업무협약'을 맺었다.

건설재해예방 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

협약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공사현장 내 위험요인에 대해 공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안전분야 교육 시 강사를 지원한다.

한미약품 '마카이드' 출시 당뇨병성 황반부종치료제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 www.hanmi.co.kr)에서 이달말 9번째 당뇨병성 황반부종치료제 '마카이드'를 출시한다.

마카이드는 안구(유리체)에 직접 주사하는 국내 최초의 트리암시놀론 성분 치료제다. 안과분야에 특화된 일본 제약회사인 와카모토에서 도입한 제품이다.

이미 일본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에서 황반두께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 또, 유리체 절제술 시 의사의 시야를 확보해(가시화) 수술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황금기대작 온라인게임, 뭐가 있을까

'메이플스토리2'·'마스터X마스터'… 핫한 5월 게임 기대작들

5월 게임시장이 대작의 잇단 출시를 앞두고 불타오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와 넥슨이 황금기대작 온라인게임 '마스터엑스마스터(MXM)'와 '메이플스토리2'의 테스트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여기에 기대할 만한 모바일 게임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갓 오브 하이스쿨 with 네이버웹툰을 준비중이다.

◆ 엔씨소프트 '마스터X마스터(MXM)'

엔씨소프트의 '마스터X마스터(MXM)'가 지난 1일 시작해 오는 10일까지 오픈형 테크니컬 베타테스트에 돌입하며 이용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MXM은 박진감 넘치는 전투와 시원한 타격감이 특징인 슈팅 액션 게임으로 기존 AOS 게임에 없는 새로운 전투 방식인 태그(Tag) 시스템을 도입해 팀 전투의 전략성을 끌어올린 점이 특징이다.

특히 PvE는 아케이드 게임을 공략하는 느낌을 줄 만큼 슈팅 액션성을 강조한 재미를 게이머에게 선사한다. 5개 테마를 준비한 MXM의 PvE 콘텐츠는 테마마다 전혀 다른 내용으로 스테이지를 구성했으며 다섯 단계의 난이도를 준비했다. 캐릭터를 조작해 발밑을 위협하는 함정, 돌진하는 몬스터 등을 피하며 느낄 수 있는 액션의 재미와 스테이지 보스 몬스터가 가진 다양한 패턴을 공략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 넥슨의 '메이플스토리2'

넥슨(대표 박지원)의 신작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2'의 파이널 테스트를 통해 오픈전 최종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테스트에서 버서커, 레비거너, 시프 등 신규 직업 3종과 파티 던전 '독액의 소용돌이', 길드 전장 등 다른 유저들과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공개됐다.

개성 넘치는 신규 탈 것과 비행 스킬은 물론 게임 내에서 집을 구입하면 다양한 특기를 가진 메이드를 고용할 수 있거나 주변 지형지물을 무기로 활용하는 등 게임에 생동감을 더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선보인다.

메이플스토리2는 지난 두 차례의 테스트를 통해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그래픽과 개성있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은 물론 유저들이 직접 놀거리를 만드는 사용자 제작콘텐츠(UGC) 시스템 등 독특한 게임성으로 호평을 받은바 있다.

◆ NHN엔터의 모바일 게임 '갓오브하이스쿨'

NHN엔터테인먼트(대표 정우진)는 신작 모바일 게임 '갓오브하이스쿨 with 네이버웹툰'의 프리미엄테스터 모집 및 사전등록 이벤트를 진행한다. 갓오브하이스쿨은 네이버 인기 웹툰 '갓오브하이스쿨'을 원작으로 한 모바일 핵스크롤 3D 액션 RPG다.

모바일 게임 갓오브하이스쿨은 네이버웹툰과 제휴해 '진모리'와 '유미라', '한대위' 등 주요 캐릭터는 물론 모든 등장 인물들이 출연하는 본격 하드코어 액션 RPG로 재탄생 됐다. 이는 최초 기획부터 웹툰 원작 그대로를 재현한 유일한 게임으로 화려한 스킬과 액션감을 3D로 구현해 보는 즐거움과 플레이어의 손맛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뇌전'과 '월광검법', '태극의 술' 등 각 캐릭터가 웹툰에서 사용하는 스킬이 게임 내에서도 완벽하게 적용됐다. SD캐릭터가 아닌 실사형의 8등신 캐릭터가 등장해 보다 통쾌하고 실감나는 액션을 경험할 수 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가정의 달 '판타지스타 재능나눔' 봉사활동

재능지원 교육 마친 '마비노기' 유저 21명과 함께

넥슨(대표 박지원)은 자사의 인기 온라인게임 '마비노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유저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푸르메 재활센터'를 방문해 '판타지스타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봉사활동은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인 '마비노기 판타지스타 재능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약 3개월 간 요리, 악기 연주, 핸디크래프트 등 3개 분야의 재능 교육을 마친 21명의 유저들이 재활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특기를 활용해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을 펼쳤다.

악기 연주를 맡은 음악팀은 마비노기 OST 삽입곡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신 옛 전설'을 비롯해 신나는 합주 공연을 선보였다. 요리와 핸디크래프트팀은 쿠키 만들기, 비니 꽃다발 꾸미기 등 다채로운 순서를 준비해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넥슨 컴퍼니 직원들로 구성된 재즈 빅밴드 '더놓자 밴드'가 무대에 올라 유명 재즈곡 및 마비노기 예인 테마 음악을 연주해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음악 재능 부문으로 참여한 마비노기 유저 안진홍씨는 "게임 속 재능을 실제로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며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공연까지 잘 마칠 수 있어 기쁘고, 짧게나마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줄 수 있어서 뜻깊다"고 말했다.

마비노기 '판타지스타 재능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마비노기 공식 홈페이지(www.mabinog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기자 fun@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인터넷' 인수

1대 주주로 올라… 7월 초 인수할 것으로 예상

NHN엔터테인먼트(대표 정우진)가 코스닥 상장사 네오위즈인터넷(대표 최관호)을 인수한다고 7일 밝혔다.

NHN엔터는 '네오위즈홀딩스'가 보유한 구주 473만 4640주와 제3자 배정 신주 130만주 등 603만 4640주(40.7%)를 총 1059억 6038만 1840원에 인수한다. 이로 인해 1대 주주에 오르게 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 등을 거쳐 7월초 인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네오위즈인터넷은 2002년 6월 설립된 온라인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유통 회사로 PC·모바일 통합 음악 포털 사이트 '벅스', '세이클럽'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투자, 라이선스 등 음악관련 B2B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009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 있으며 작년 말 기준 자본금은 67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 545억원, 영업이익 92억원, 당기순이익 81억원을 달성했다. 현재 네오위즈홀딩스(49.63%) 및 특수관계인이 52.7%(자사주 제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 측은 "오랜 기간 내실 있는 사업을 운영해온 '네오위즈인터넷'의 인수를 통해 충성도 높은 유료 회원과 우수한 콘텐츠를 가진 기업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와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문경기자

넷마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한 자속적인 투자·지원 예정

넷마블게임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게임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는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구축했는지 점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넷마블은 지난해 12월 기업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체계를 운영하는지를 평가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획득한 바 있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넷마블은 2004년부터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를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마크(ePRIVACY)를 10년 연속 획득하는 등 게임 서비스를 즐기는 이용자들의 정보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넷마블은 '우수한 게임으로 전 세계 고객들의 삶을 즐겁게 한다'는 모토 아래 3500만 명 회원의 게임포털 '넷마블'을 서비스 하고 있다. 스포츠 게임 '마구마구', 액션 MMORPG '별로아' 등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PC온라인 게임은 물론 '모두의마블', '몬스터길들이기', '세븐나이츠', '레이븐' 등 다수의 인기 모바일 게임 배출을 통해 국내 최고의 게임회사로 평가 받고 있다. /김승호기자 fun@

밝은 캐릭터, 갈증이 있었죠

코믹한 캐릭터로 망가지는 연기
알콩달콩 로맨스 파쿠르 액션까지
배우 활동으로 더 사랑받고 싶어

영화 '위험한 상견례2' 홍종현

영화 '위험한 상견례2'에서 홍종현(25)은 실제 모델 출신답게 멋있는 모습으로 스크린에 등장한다. 상담을 하러 온 선생님의 마음까지 빼앗아버릴 정도로 매력적인 청년이다. 그러나 첫눈에 반한 사랑 때문에 멋을 버리고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으로 180도 달라진 모습이 된다. 과묵하고 차가울 것 같은 홍종현의 모습을 떠올리면 의외의 변신이다.

그에게 '위험한 상견례2'는 상업영화에서 처음 주연을 맡은 영화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지도를 쌓아가던 그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의 매력에 빠져 작품을 선택했다.

"밝은 캐릭터를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냉소적인 캐릭터를 주로 해서 약간의 갈증이 있었거든요. 제가 극의 중심이 돼 코미디를 이끌어 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망가지기도 하고 액션도 하는 등 여러 모습이 담겨 있어서 좋았어요."

영화는 원수지간과도 같은 경찰가족과 도둑가족 사이의 소동, 그리고 이들 가족에서 태어나 결혼을 꿈꾸는 영희(진세연)와 철수(홍종현)의 이야기를 그린다. 홍종현은 철수를 "나쁘게 말하면 바보 같지만 좋게 말하면 우직하고 욕심 있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다소 만화적인 설정에 대해서는 "코미디 장르인데다 경찰가족과 도둑가족의 추격전도, 톰과 제리 같은 유쾌한 느낌이 있어서 좋았다. 나만 잘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코미디와 로맨스, 액션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했지만 홍종현이 가장 신경 쓴 것은 "관객이 보고 즐거운 영화를 만들자"였다. "우리 영화에서는 일상적인 캐릭터보다 과장된 캐릭터가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웃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눈 밑에 다크서클을 칠하고 쓰레기를 뒤집어쓰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영화 속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망가져가는 홍종현의 모습은 관들에게 신선한 선물일 것이다.

주택가 옥상에서 펼쳐지는 액션 신 또한 홍종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홍종현이 처음 도전하는 맨몸 액션 연기였다. "처음에는 액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액션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감독님에게 직접 의견을 냈죠. 파쿠르도 배웠고 액션 스쿨도 두세 번 갔어요. 다만 영화 촬영 전 드라마를 하고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게 아쉬웠죠."

진세연과 호흡을 맞춘 로맨스 연기는 소금 닭살이 돋긴 했지만 즐거운 경험이었다. 이번 영화로 처음 만난 진세연과는 '오글거리는' 로맨스 연기를 하다 보니 금세 친해질 수 있었다. 홍종현은 "철수와 영희는 요즘 세대와는 다른 커플 같다"면서도 "실제 연애 스타일은 철수와 영희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웃었다.

드라마, 예능에 이어 영화까지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는 홍종현은 아직 배우로서 목마름이 크다. 최근 걸스데이 유라와 함께 가상 부부로 출연했던 '우리 결혼했어요'에 대해서는 "덕분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됐지만 제 이미지로 인한 오해도 생긴 것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아직 대표작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하자 "앞으로 배우 활동으로 이름을 더 알리고 사랑 받고 싶다"고 답했다. 영화 속 철수와 같은 반듯한 모습처럼 진심이 담겨 있는 모범답안이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이완기)

star bag

뮤직비디오로 청순 변신

배우 김고은이 가수 성시경의 신곡 '컴 위드 미 걸(Come with Me Girl)'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 이번 신곡은 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브라운아이드소울의 릴레이 싱글 프로젝트로 발표된 노래다. 지나간 사랑을 그리워하면서도 추억을 되돌아보는 여인으로 등장해 청순하고 여린 모습을 표현했다.

영화 '감옥에서 온 편지' 출연

배우 김향기가 영화 '감옥에서 온 편지'(감독 권종관)에 출연한다. '감옥에서 온 편지'는 권력으로 인해 억울하게 갇힌 남자 권순태가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범죄 스릴러다. 김향기는 권순태의 어린 딸 권동현 역을 맡아 아빠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의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그린다.

대만 패션매거진 커버 장식

배우 공효진이 대만의 패션매거진 마리끌레르의 5월호 커버를 장식했다. 공효진은 드라마 '건빵선생과 별사탕' '파스타' '최고의 사랑' '주군의 태양' '괜찮아 사랑이야' 등이 대만에서 방영되면서 중화권에서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대만 측이 화보 촬영을 제안해 지난 3월 한국을 찾았다.

생일 기념 팬미팅 개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오는 30, 31일 이틀간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팬미팅을 연다. 현재 SBS 수목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에 경찰 최무각 역으로 출연 중인 그는 액션부터 코믹, 멜로까지 소화하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팬미팅 티켓은 11일 오후 8시부터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겨울왕국의 ‘엘사’, 제게 큰 축복이었어요”

이디나 멘젤 30일 방한 … ‘렛잇고’ 등 히트곡 선사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이디나 멘젤이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무대는 아시아 투어의 일환이다. 본지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한국 팬들 앞에 서는 설레는 소감을 전했다.

"배우로서 2014년은 내게 엄청난 한 해였어요. '겨울왕국'의 성공으로 한국 팬들처럼 예전에 만나지 못했던 각국의 팬에게 잘 알리게 됐으니까요. 그저 감사할 뿐이죠."

1996년 뮤지컬 '렌트'로 데뷔한 멘젤은 이제 브로드웨이를 넘어 전 세계 인기를 누리는 스타가 됐다. 그는 엘사를 연기한 덕분에 올해 초 슈퍼볼 무대에서 국가를 부르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특히 국내에선 '초통령(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란 별명으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누렸다. 어린이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 '렛잇고'를 부르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공연에 한국의 어린이 팬도 왔으면 해요. '렛잇고'뿐만 아니라 다른 뮤지컬 노래들도 선보이려고 하거든요. 지금도 계속 어떤 무대를 만들지 세밀한 부분까지 구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전 브로드웨이에서 일주일에 8회씩 하는 공연이든 단독 투어든 모든 공연 전에는 항상 긴장을 해요. 하지만 그런 긴장감은 절 살아있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공연장을 우리 집 거실처럼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제 공연을 본 관객은 작은 창 너머로 제 영혼을 들여다본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죠. 한국 팬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네요."

멘젤을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신데렐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는 지난 10년 동안 매일 매 순간을 무대로 여기며 살아왔다.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맞서는 모습은 '겨울왕국' 엘사와도 닮았다.

"꿈을 이루기까지 정말 여러 노력했어요.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배우로도 성공한 후에도 레코드 회사와의 계약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고, 팝 가수로선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하지만 전 노래하고 연기하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늘 그것에만 집중했죠."

이디나 멘젤의 내한무대는 오는 30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한국과 일본 싱가폴을 거친 후 북미 투어로 이어진다.

그는 '겨울왕국'의 주제곡 '렛잇고(Let it go)'는 물론 '위키드', '렌트', '아이다' 등 뮤지컬 넘버를 열창한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세계 최정상 피겨 스타 한자리에

‘2015 불쇼이 온 아이스’ 24일까지 개최

세계 최정상의 피겨 스타들이 '2015 불쇼이 온 아이스'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1993년 첫 내한공연을 시작으로 22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볼쇼이 온 아이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계 최고의 피겨 선수들의 화려한 무대로 지난달 28일 막을 올렸다.

이번 '2015 볼쇼이 온 아이스'에는 안도 미키, 엘레나 라디오노바, 드미트리 드미트렌코, 가와구치 유코 & 알렉산더 스미르노브 등이 출연하고 있다.

특히 2014년 현역 은퇴를 선언한 뒤 지난해 '2014 볼쇼이 아이스 쇼'로 첫 내한 무대를 가진 일본 피겨스케이팅 선수 안도 미키는 이번 아이스쇼로 다시 한 번 한국 관객과 만난다. 안도 미키의 무대는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볼 수 있다.

'2015 볼쇼이 온 아이스'는 화제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원작인 '눈의 여왕'과 '백설공주', '로미오와 줄리엣', '메리 포핀스', '백조의 호수' 등의 내용을 함께 엮어 매혹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24일까지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다. 문의 1588-0786

2015 볼쇼이 온 아이스'에 출연하는 세계 최정상의 피겨 스타들. 상단 왼쪽부터 안도 미키, 엘레나 라디오노바, 가와구치 유코 & 알렉산더 스미르노브, 드미트리 드미트렌코.

/조성호기자 jsalanin@

힙합으로 만나는 음악영화제 ‘필름 라이브’

KT&G 상상마당에서 열리는 음악영화제 '2015 필름 라이브 KT&G 상상마당 음악영화제'(이하 '2015 필름 라이브')가 다음달 5일부터 14일까지 홍대 KT&G 상상마당에서 열린다.

올해 8회째인 '2015 필름 라이브'는 최근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힙합'을 테마로 삼아 미개봉 신작 음악영화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개막작으로는 힙합을 전면에 내세운 영화 '도쿄 트라이브'를 선정했다. '자살 클럽', '기묘한 서커스', '두더지', '지옥이 뭐가 나빠' 등 독특하고 기발한 작품을 연출해온 소노 시온 감독의 신작이다. 지난해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화제작으로 엉뚱한 웃음을 유발하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의 예측 불가능한 대사와 행동으로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정성호기자

“섹시 코드 매력적… 놓치고 싶지 않아”

지난해 솔로곡 '굿나잇 키스(Good-night kiss)'로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렀던 전효성이 컴백했다.

전효성은 7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예스24무브홀에서 첫 번째 미니 앨범 '판타지아(FANTASIA)' 쇼케이스를 열고 신곡 맛보기 무대를 선보였다.

타이틀곡 '반해'는 무대 위에서 빛나는 전효성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곡이다. 감각적인 사운드와 화려한 퍼포먼스가 특징으로 첫 눈에 반한 남자를 향해 던지는 솔직하고 당돌한 메시지를 담았다. 데뷔 후 처음으로 랩에 도전한 전효성의 음악적 변신이 돋보인다.

이날 전효성은 "내가 보기에만 좋은 음악을 한다는 편견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귀도 즐거운 음악을 채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며 "귀도 즐겁고 눈도 즐거운 노래는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다. 에드리과 랩에 도전했고 작사에도 참여했다. 온전히 내 색깔로 앨범을 채우려 했다"고 밝혔다.

시크릿의 전효성이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예스24무브홀에서 솔로 앨범 '판타지아(FANTASIA)'의 쇼케이스를 열고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전효성 첫 솔로 미니 앨범 '판타지아' 발표

이어 "그룹으로 활동할 땐 멤버들이 있으니까 든든했는데 혼자서 무대를 이끌려니 내 역량이 모두 드러났다. 사람들이 내 무대를 봤을 때 빈틈이나 허전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춤, 노래 모두 노력했다. 솔로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좋은 공부가 됐다"고 덧붙였다.

멤버들 없이도 혼자서 무대를 거뜬히 소화한 전효성은 자신의 장점으로 역동적이고 건강한 섹시함을 꼽았다. 그는 "섹시 코드를 좋아한다. 매력적인 콘셉트이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다"며 "하지만 항상 섹시가 주된 것은 아니다. 이번 노래에서도 안무와 의상 등을 통해 변화를 줘봤다. 대중이 '솔로 가수 전효성'을 바라봤을 때 건강하고 파워풀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섹시한 디바가 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김지민기자

비스트 장현승, 솔로 데뷔 ‘성공적’

비스트 장현승(사진 왼쪽)이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성공적인 솔로 데뷔 무대를 치렀다.

7일 오후 6시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솔로곡 '니가 처음이야'를 최초로 공개한 장현승은 최근 인기 래퍼로 주목받고 있는 기리보이와 호흡을 맞춰 눈길을 끌었다.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기리보이는 장현승의 피처링 러브콜에 흔쾌히 응해줬다"며 "기리보이의 래핑으로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니가 처음이야'는 펑키한 사운드와 현란한 트랩 비트가 어우러진 힙합 넘버로 대담한 가사가 특징이다. 음원은 8일 오전 0시에 발매됐다.

/정지은기자

뜬공 잃어버린 나지완… 결국 2군행

스포츠 주간 해프닝

나지완의 오랜 타격 침묵에도 KIA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은 기다렸다. 늘 나지완을 선발 라인업에 포함시키며 슬럼프에서 빨리 탈출하기를 고대했다. 하지만 나지완의 어처구니 없는 수비 실책에 김기태 감독은 결국 폭발했다.

지난 5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KIA와 NC 다이노스의 경기. 6번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출전한 나지완은 2-2로 팽팽히 맞선 4회말 NC 이호준의 평범한 뜬공 타구를 놓쳤다. 햇빛에 공을 시야에서 놓친 듯 하염없이 허공만 바라봤다.

중견수 김다원이 황급히 달려와 떨어진 공을 잡았지만 이호준은 2루까지 무사히 들어갔다. 이어 지석훈의 안타로 3루에 간 이호준은 손시헌의 내야 땅볼 때 홈을 밟았다. 이 득점은 NC의 결승 득점이 됐다.

김기태 감독은 5회말 수비에서 이날 5경기만에 안타를 기록한 나지완을 빼고 이은총으로 교체했다. 나지완은 다음날 2군으로 향했다.

KIA 타이거즈의 나지완과 NC 다이노스의 해커

◆ 송구실책에 카메라 감독 봉변

2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전날 수비 도중 3루수 황재균(롯데)과의 충돌로 약간 부상한 유격수 문규현을 대신해 선발출전한 강동수는 1회말 첫 수비에서 에러를 범했다.

한화 1번타자 이용규의 땅볼 타구를 잡은 강동수는 공을 1루로 송구했다. 꿈에 그리던 1군 무대 선발출장에 긴장한 탓인지 강동수가 송구한 볼은 1루수 김대우의 키를 훌쩍 넘겨 더그아웃으로 향했다. 이용규는 가볍게 2루까지 들어갔다.

하지만 이때 강동수보다 얼굴이 더 붉어진 사람이 있었다. 1루수쪽 더그아웃에서 카메라를 들고있던 SBS Sports 카메라 감독이었다. 그는 강동수가 던진 볼에 어깨쪽 부위를 맞아 고통을 호소했다. 강동수의 화끈한 1군 프로 신고식이었다.

◆ 김상현 타구에 중요부위 맞은 해커

1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KT 위즈의 경기. 0-0으로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던 4회말 1사 2루 상황에서 KT 김상현이 타석에 들어섰다. 김상현은 NC 선발투수 에릭 해커의 5구째 직구를 힘껏 받아쳤다. 공교롭게도 김상현의 타구는 해커의 중요 부위(?)를 강타했다.

하지만 해커는 고통도 잊은 채 땅에 떨어진 공을 잡아 곧바로 1루로 송구해 김상현을 잡았다. 이후 놀란 NC 내야진과 코칭스태프는 해커 주위로 몰려들었지만 해커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투구를 했다.

이날 김상현은 7회 오뚜기는 해커를 상대로 솔로포를 날리는 등 여러모로 해커를 괴롭혔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7일(한국시간) 열린 FC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의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팀의 3-0 대승을 이끈 리오넬 메시가 경기 후 그라운드를 빠져나오고 있다. /AP 연합뉴스

'메시의 3분 마법' 뮌헨 침몰시키다

2골1AS 원맨쇼… 바르셀로나 3-0 대승

◆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역시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였다.

메시는 7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누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첫 1차전에서 후반 30분 이후 2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원맨쇼를 펼치며 3-0 대승을 이끌었다.

메시가 2골을 넣는데 걸린 시간은 단 3분이었다. 0-0으로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던 후반 32분 메시는 다니 아우베스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앞에서 슈팅, 뮌헨의 골망을 갈랐다. 이어 후반 35분 제롬 보아텡을 제치고 골키퍼를 넘기는 감각적인 칩슛을 성공시키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메시의 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후반 추가시간에는 팀 동료 네이마르에게 어시스트까지 성공시켰다.

이날 뮌헨 수비는 메시가 공을 잡으면 중앙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했다. 메시에게 공이 가는 것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후반 70여분까지는 과르디올라 뮌헨 감독의 해법이 효과를 보는 듯했다. 하지만 메시는 뮌헨 수비진이 지쳐갈 무렵 자신에게 온 단 몇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

이날 2골을 넣은 메시는 챔피언스리그 10호골을 기록하며 전날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의 경기에서 9호골을 기록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제치고 득점 랭킹 단독 선두에 올라섰다. 또 챔피언스리그 통산 득점에서도 77골을 기록, 76골의 호날두를 제치고 선두로 나섰다. /김민준기자

코리안 메이저리거 방망이 폭발

추신수 시즌 3호 투런… 강정호 2루타 멀티히트

코리안 메이저리거 타자 2명이 모처럼 장타를 터뜨리며 활약했다.

'추추 트레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번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팀이 2-0으로 앞선 2회 두 번째 타석에서 좌월 2점 홈런을 날렸다. 상대 선발 사무엘 데두노의 4구째 시속 140㎞의 직구가 바깥쪽으로 높게 들어오자 그대로 밀어쳐 펜스를 넘겼다.

추신수

지난 3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 3점포 이후 4경기만의 홈런으로 시즌 3호다. 또 2일 오클랜드전부터 5경기 연속 2루타를 친 추신수는 이날 홈런으로 최근 4경기 연속 장타 행진도 계속했다.

강정호

하지만 삼진도 세 차례 당해 이날 5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151에서 0.154(78타수 12안타)로 조금 올랐다. 텍사스는 홈런 3방을 포함한 13안타를 몰아치고 휴스턴을 11-3으로 완파했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도 신시내티 레즈와의 홈경기에서 6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장해 9회말 마지막 타석에서 2루타를 치는 등 4타수 2안타의 멀티히트를 작성했다. 시즌 타율은 0.265에서 0.289(38타수 11안타)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강정호의 활약에도 피츠버그는 0-3으로 패해 5연패에 빠졌다. /김민준기자

류현진 5월말 복귀 불투명

"불펜피칭 취소… 재활 속도 늦췄다"

왼 어깨 통증으로 60일짜리 부상자 명단(DL)에 등재된 류현진(28·LA 다저스)이 재활 속도를 늦췄다.

LA 타임스와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7일(한국시간) "류현진이 예정된 불펜피칭을 미뤘다"고 보도했다. 앞선 불펜피칭에서 불안한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LA 타임스는 "류현진이 2일 불펜피칭을 할 때 구속이 82~83마일(시속 132~134㎞)에 그쳤다. 다저스 재활 파트가 원하던 구속보다 1~2마일 정도 낮은 구속"이라며 "예정대로라면 한 차례 더 불펜피칭을 할 시점이지만 2일 이후 공을 던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재활 속도를 늦췄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크게 걱정할 일이 생긴 건 아니다. 스프링캠프 때 잭 그레인키의 몸 상태를 걱정했지만 지금 잘 던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희망적으로 이야기했다. /김민준기자

날씨

5/8 금 해뜨는 시각 05:30 해지는 시각 19:2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지역	기온
서울	10/28
청주	12/[illegible]
대전	11/24
전주	11/26
광주	10/26
제주	12/[illegible]
강릉	14/26
울릉도	14/20
대구	15/28
포항	15/26
울산	13/25
부산	15/22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 / 식중독 위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국제대학교 서울캠퍼스 www.[illegible]

宁缺毋滥 [nìng quē wú làn]

<시리리 부족한 대로 놓아둘지언정 아무렇게나 채우지 않는다>

시사 중국어

차라리 부족한 대로 놓아둘망정 아무렇게나 채우지는 않는다.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법관의 공백이 길어진다며 직권상정을 했고 야당의 참의 불참 아래 여당은 단독으로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대법관의 공백이 길면 당연히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다고 여당 단독표결에 따른 대법관 임명은 국민 대다수는 원치 않았을 겁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달리 보면 상당수 국민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대법관에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법 경륜과 존경의 상징인 대법관 임명동의에는 전 국민적 합의를 거져야 합니다. 여야의 합의는 전 국민적 합의를 대신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을 끝내 해소하지 못하고 대법관 자리에 오른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정점에 있어야 할 대법관으로서는 치명적입니다.

중국에는 '차라리 부족한 대로 놓아둘망정 아무렇게나 채우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결혼을 안할망정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 딱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철기자 jk.[illegible]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등뽁!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나뉘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9		1	4		3		7	
	2		7					
4			2			8		7
	6						3	
5		2			6			4
					4		8	
	3		9		2	6		1
2								

			4			2	6	
		1			7		5	
				5				
1	8			9		5	3	
3								2
	5	6		1			4	9
				4				
	7		8			4		
	3	5			6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펜시 스도쿠 프리미엄
(제티 고든 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 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동업하는 언니와 마음이 안맞아 고민이에요
36세부터 승발 운… 조금 더 양보하시길

한덕귀(가명) 여자 83년 12월 21일 양력 2시경

Q 저는 올해 33살입니다. 나이가 10년 위인 언니와 낮에는 커피점을 하고 밤에는 주점을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언니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미가 잘 안 맞아 가끔 트러블이 있습니다. 언니는 제가 너무 고집이 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언니가 뭐든지 자기 위주로만 결정하고 밀고 나가는 것이 싫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문제의 해결점은 내 자신에서 찾으라는 말이 있지만 제 잘못만은 아닌 것 같아 자문을 구하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합니다.

A 지금 상태로 간다면 5월지나면서 부딪침이 더 강하게 되고 7월 되면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는 생월지(亥月)에 자수(子水)는 지적수준이 높은 편으로 보편적인 기준에서 지혜와 총명을 앞세워지만 따지기를 좋아하여 상대가 피곤하게 느낄 수 있으니 한덕귀님이 예기치신처럼 같이 모든 문제의 답은 자기 자신에서 찾는 것이 편안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대신 남의 잘못은 조그마한 것도 그냥 넘기지를 못하고 따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겨울에 태어나 사방에 촉촉한 비가 내리는 형상으로 비에 젖은 나무의 뿌리가 썩는 것과 같으니 손실이 나지 않는다면 좀 더 양보를 해보십시오. 사주용어로 인수(印綬) 나를 생해주는 오행)가 있으나 묶여있어 원활치가 않으니 학문을 써먹지 못하고 자신을 추스르지 못하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장사를 한다 치면 나보다 나은 사람과 또는 경험이 많은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라고 봅니다. 인성이 넘치지만 사주의 상황이 정해한 신금(辛金)주변에 갑목(甲木)과 을목(乙木) 등 쌩과 같은 것이 중중(重重)하여 정신적으로도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화기(火氣)가 부족하고 한백수되어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눈에 띄었으니 주점과 같은 대인관계가 빈번한 업종은 원칙에 따라 전개되지 않으나 배우면서 일하십시오. 타고난 생미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야 없겠지만 다행히 재물이나 사업성을 대변할 수 있는 정관재(正官財)가 나가 극하는 오행으로 정규적인 봉급이나 비정규적인 재물을 나타내기 36세부터 승발 하는 운이므로 현재하는 커피나 주점의 자리증을 따면서 발전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안에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음 3월 20일) 사주스타 www.[illegible] 060-[illegible]

쥐 48년생 단시일 내에 이루려는 꿈은 불길합니다. 60년생 순리적이라도록 하세요. 72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윤에 뛰어들지 마세요. 84년생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 49년생 반드시 뜻이 이루어집니다. 61년생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73년생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85년생 건강 [illegible] 들을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호랑이 50년생 모든 일이 어려움 뚫어가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62년생 정상궤도로 올라서게 되어 승승장구합니다. 74년생 뜻대로 밀고 나가세요. 86년생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때를 타고 났습니다.

토끼 51년생 관련이 공로를 치하하여 빛을 보게 됩니다. 63년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75년생 작은 소원이라도 결과는 크게 이루어집니다. 87년생 근면함이 [illegible] 관심으로 [illegible].

용 52년생 공로를 세워 인으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64년생 사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76년생 노력한 것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88년생 모든 일이 술술 풀립니다.

뱀 53년생 새로운 삶을 계획합니다. 65년생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77년생 수양을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89년생 장래를 생각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 54년생 눈 앞의 이익을 생각하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66년생 외지로 나가지 마세요. 78년생 시간을 낭비해선 안됩니다. 90년생 좋다면 무조건 밀고 나가세요.

양 55년생 매사에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67년생 생각도 못했던 일로 즐거워집니다. 79년생 소원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91년생 남과 다투지 마세요. 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 56년생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세요. 68년생 관재에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80년생 바라는 일이 너무 커서인 것 같습니다. 9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말을 조심하세요.

닭 57년생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69년생 많은 것을 바라니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81년생 자손의 분수를 알아야 할 때 입니다. 93년생 마음이 극에 달했습니다.

개 58년생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할 때입니다. 70년생 여행은 떠나지 마세요. 82년생 사업을 확장하면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94년생 지금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돼지 59년생 점차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71년생 본인의 의지를 과감하게 밀고 나가세요. 83년생 관재는 한번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95년생 자기운 것을 주의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밥값'만 하루 평균 117만원

서울 시장·부시장 1~3월 업무추진비 총 2억원 넘어
대부분 식대… '1인 1회 4만원이하' 규정 어긴 경우도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임종석 정무부시장·정효성 행정1부시장·이건기 행정2부시장 등 최고위층 4명이 올들어 3월까지 석달동안 쓴 업무추진비가 총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일 기준으로 보면 박시장은 하루 평균 117만원, 임 정무부시장은 86만원 정도를 썼다.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식당에서 지불됐으며, 극히 일부만 경조사비와 다과류 구입비용으로 썼다. 업무취의 명분이지만 사실상 개인적으로 '한턱내는' 밥과 술값인 셈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3월 박원순 시장과 3명의 부시장들은 총 2억1619만56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개인별로는 박 시장이 7039만6958원으로 가장 많고, 임종석 정무부시장 5203만6312원, 정효성 행정1부시장 5137만3630원, 이건기 행정2부시장 4242만8900원 등이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박 시장은 117만2615원, 임종석 정무부시장 86만7271원, 정효성 행정1부시장 85만6227원, 이건기 행정2부시장이 70만7148원을 '밥값'으로 쓴 셈이다.

이 가운데 저녁 또는 밤에 쓴 돈이 20~30%를 차지했다. 오후 8시 이후 간담회 명목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박원순 시장 약 1400만원(전체 추진비의 20%), 임종석 정무부시장 약 1600만원(전체 추진비의 32%), 정효성 행정1부시장 약 1200만원(전체 추진비의 24%), 이건기 행정2부시장 약 1300만원(전체 추진비의 31%)이다.

휴무일인 토·일요일에 쓴 돈도 만만찮다.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쓴 횟수와 금액은 박원순 시장 19회(387만원), 임종석 정무부시장 3회(68만7000원), 정효성 행정1부시장 2회(45만7000원), 이건기 행정2부시장 6회(264만원)로 집계됐다.

박 시장은 1월 26일 오후 8시 중구 한계천쯤 식당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사외의 협력방안 관련 간담회"를 하면서 154만원을 지출해 단일건으로 최다액 지출을 기록했다.

내용이 일응달쏭한 지출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임종석 부시장은 1~3월 식당등에 30분단위로 간담회를 시행한 횟수가 총 25회로 모두 식당에서 했다. 3월 16일의 경우 오후 8시 7분과 8시 9분, 8시 40분, 10시 46분에 중구와 종로구 일대 식당에서 잇따라 간담회를 연 것으로 돼 있다.

<서울시 시장·부시장 올 1~3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월	2월	3월	합계	일평균
[illegible]	[illegible]	37,097,383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임종석 정무부시장	11,235,112	23,155,930	17,644,570	52,036,312	867,271
정효성 행정1부시장	13,227,700	16,410,530	21,735,400	[illegible]	856,227
이건기 행정2부시장	16,596,366	14,906,498	[illegible]	42,428,900	[illegible]

/자료=서울시

지난달 1일 행정자치부령 제23호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업무추진비는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해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는 ▲이재민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의 지원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학술 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개최 ▲원(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간담회 등에서의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경우 1인 1회당 4만원을 넘는 경우가 1월 3회, 2월 2회, 3월 4회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1인당 4만원을 초과하면 회계 처리할 때 누구누구가 참석했는지를 서류상으로 기록만 남겨놓는다"며 "업무추진비 내용 공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박 시장 등은 주말에도 간담회와 업무취의 직원격려를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여러번 사용했다.

업무추진비를 주말에 사용한 횟수와 금액은 박 시장 19회(387만원), 임종석 정무부시장 3회(68만7000원), 정효성 행정1부시장 2회(45만7000원), 이건기 행정2부시장은 6회(264만원)다.

2014년 말 현재 서울시 채무는 3조 2106억원으로 2013년과 비교해 8.7% 증가했다.

/박현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온천축제장 이팝나무 활짝 7일 시민들이 이팝나무 꽃이 활짝 핀 대전 유성구 봉명동 족욕체험장에서 온천욕을 즐기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8일부터 사흘간 족욕장 일대에서 온천축제를 연다. /연합뉴스

檢, 신세계 메트로신문 강탈·경찰 직무유기 수사 본격화

신세계 이마트 측의 메트로신문 강탈 사건과 이 사건을 묵인한 서울 남대문경찰서 측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이 두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위길성 검사에게 최종 배정됐다. 애초 형사 1부와 2부가 각각 한 사건씩 맡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사건이 서로 연관돼 두 사건 모두 형사 1부에 배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창동 지하철 4호선 회현역 7번 출구 근처에서 신세계그룹 직원 2명이 메트로신문 배포도우미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메트로신문을 강제로 빼앗고 배포대에 놓여있던 신문지 40여부를 탈취해 도주했다.

이때 시민들이 신세계 이마트 직원 1명을 붙잡아 현장에 출동한 남대문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인계했지만 해당 경찰관들이 현행범을 방면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지난달 14일 변관수 남대문경찰서장과 오경석 남대문파출소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 등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을 형법상 직무유기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본지는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인 증거보전신청에 따라 당시 관련 범죄가 일어났던 회현역 6·7번 출입구 방향 계속회로카메라(CCTV) 영상을 확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아울러 근거로 본지는 신문을 강탈한 신세계 이마트 직원 2명을 특수강도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檢, 홍준표 구속수사 검토

측근들도 수사 병행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는 등 금품 수수 정황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홍 지사 측이 조직적으로 '말맞추기' 등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 회유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인 수수액 2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홍 지사가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홍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 지사의 측근 김모(58) 씨를 지난 6일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최근 윤 전 부사장을 만나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하라고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 /연합뉴스

검찰은 김씨가 홍 지사의 지시를 받고 윤 전 부사장을 회유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 지사의 또 다른 측근 엄모(59)씨를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날 오후 4시에 홍 지사의 비서관 출신인 신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신씨는 홍 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옛 한나라당 대표를 맡을 때까지 그를 보좌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2011년 6월 홍 지사가 당 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에도 캠프 실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현근기자 rsunjun@